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北韓調查研究

北韓社會變動展望에 關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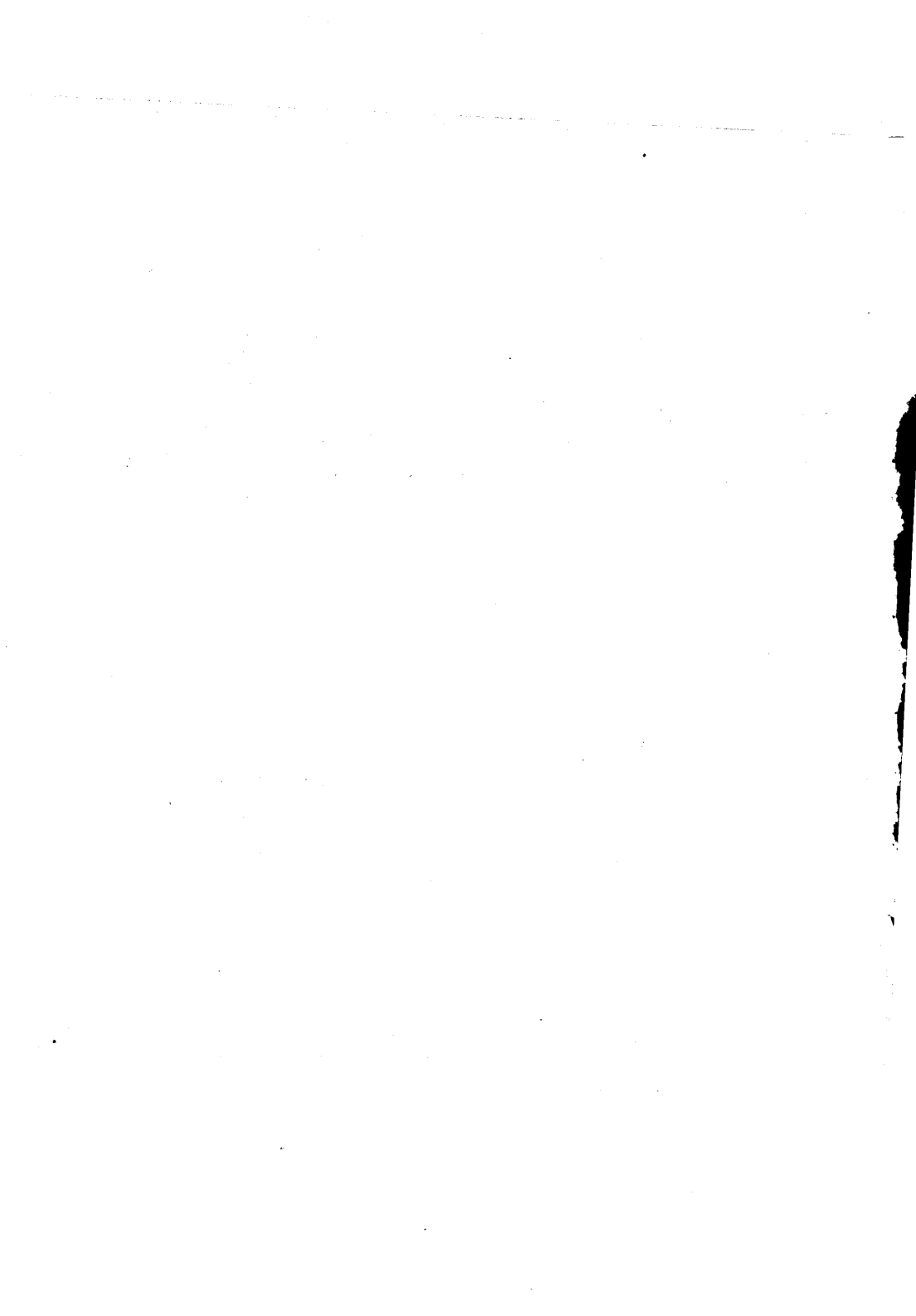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安秉永

(略歷)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卒 (1965)
 오스트리아 빈 大學卒 政治學博士 (1971)
 韓國外國語大學 教授 (1972)
 延世大學校 法政大 教授 (1975~)

刊行責任 尹東鉉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席	3
2. 共產主義 社会體制分析의 理論模型	5
2.1. 全體主義 理論模型	5
2.2. 變動發展模型	8
2.2.1. 새로운 理論構成을 위한 試圖	8
2.2.2. 共產主義의 動員政權	14
2.2.3. 社会變動의 一般理論	21
2.3. 産業社会模型	26
2.4. 結 論	29
3. 北韓社会의 變動論의 接近	32
3.1. 變動의 震源	32
3.2. 理念體系	35
3.3. 社会體制分析	43
3.3.1. 政治體制	43
3.3.2. 社会文化體制	57
3.3.3. 經濟體制	67
3.4. 環境要因	73
4. 變動誘因變數間의 聯関構造	75
4.1. 理念體系	75
4.2. 社会體制分析	78
4.3. 環境要因	80
4.4. 対応策	81

1. 序

筆者는 北韓의 社会變動과 연관된 一連의 研究(「北韓社会의 變動可能性과 自由化 方案에 관한 研究」1973.6, 「北韓社会文化體系의 經驗의 分析和 變動모델 構成」1973.12, 「非政治分野交流가 미칠 北韓 知識人階層의 意識構造變動에 관한 研究」1973.8)를 통하여 北韓社会體制의 分析和 그 構造의 變動의 가능성을 論議한 바 있다. 이에 筆者는 이들 앞서 행한 研究의 理論的 成果와 그간 變化된 認識의 틀, 經驗의 資料등을 종합하여 本 研究에 착수 하였다.

전체적 구성을 概觀하면 2章에서 우선 共產主義體制分析을 위한 代表的 理論模型들을 比較적 상세히 檢討하였다. 이는 北韓社会에 적용가능한 理論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는 예비연구의 意義가 있다.

3章에서는 前章의 理論的 成果를 中心으로 北韓社会變動의 震源의 구명과 적용가능한 變動變數의 추출, 또 이를 매개로 한 北韓社会의 現象分析和 變動可能性 진단등을 시도하여 보았다.

4章에서는 3章에서의 결과를 종합하고 개々の 주요변수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한 후, 우리에게 「期待되는 變動」을 유도할 수 있는 方案을 검토하였다.

論議의 明確성을 確保하기 위하여 本人의 다른 論文에서 상세히 설명된 理論부분과 資料의 例示는 중복을 피하고 가능한 한 간략한 설명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중요한 論理體系의 構成에 필요한

설명부분은 本 論文의 独自の 體系構成을 위하여 再論의 無理함을 감수해야 했다.

研究對象에 대한 經驗的 資料의 不足과 限定된 參考文獻, 이 部門에 대한 앞선 研究의 불모등은 필자가 經驗한 가장 큰 난관이 없음은 종전 연구의 경우와 크게 다름이 없었다.

2. 共產主義 社会体制分析의 理論模型

2. 1. 全體主義 理論模型

共產主義 社会體制에 대한 初期의 理論的 分析模型은 주로 政治學者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이들 古典的 比較政治學者들은 스탈린主義로 표상되는 「쑤비엘」政治現象에 특히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이를 같은 시대에 유럽을 통일했던 히틀러治下の 나치독일의 政治現象과 동일한 概念範疇속에 포함시켜 다루기를 즐겨했다.

이들이 발전시킨 比較概念은 이른바 「全體主義」(totalitarianism) 내지 「全體主義的 獨裁」(totalitarian dictatorship) 模型이니 이러한 研究傾向은 1930年代末부터 시작하여 1940年代와 50年代를 거치면서 적지않은 진전을 보였다. 특히 제2단계라고 볼 수 있는 1940年代末 以後의 時期에는 제1단계에서 제련화된 全體主義概念을 후기 스탈린유형의 蘇聯 政治體系에 적용하므로써 많은 理論的 發展을 經驗한다.¹⁾ 全體主義의 理論模型이 제시하는 全體主義的 獨裁의 전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註1)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M.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Mass., 1953); Z. Brzezinski, The Permanent Purge (Cambridge, Mass., 1956); Friedrich, ed. Totalitarianism; and Friedrich /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등이 있다.

우선 20世紀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類型的 全體主義的 獨裁는 과거에 보아온 전통적인 形態의 權威主義的 支配의 경우와 달리 그 權力基礎가 大衆의 基礎위에 構築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高度의 似而非 大衆的 屬性(pseudo-popular character)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全體主義的 獨裁의 두번째 특징은 그것이 高度로 官僚화된 權力體系(a highly bureaucratized system of power)라는 점으로 全體主義는 극도의 官僚化 過程을 隨伴한다는 基本命題와 연결된다.

全體主義 概念構成에서 강조된 세번째 특징은 이른바 體系的 테러(systematic terror)의 문제로서 Brzezinski는 이를 [全體主義의 가장 보편적 徵表]로써 Fainsod는 「現代的 全體主義의 關鍵」으로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全體主義 理論家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全體主義體制의 네번째이자 그 결정적인 특징은 그것이 극도의 動態的 現象(dynamic phenomenon)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永遠한 革命」(permanent revolution-sigmund neumann)으로 점철되는 全體主義的 「다이내미즘」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全體主義的 動態性的 震源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두갈래로 分岐되는데 그 첫번째 입장은 全體主義的 動態性的 動因은 全體主義體制 自體의 機能的 必須要件(functional requisites) 내지는 體制로써 당연히 要求되는 基本的 諸需要(postulated system-needs)라는 관점에서 밝혀

질 수 있다는 所論이다. 예컨대 Brzezinski의 「肅清이란 全體主義의 리더십의 合理的 動機와 體制의 非合理的인 강제간의 교환으로써, 이는 지속적인 力動性和 에너지를 要求하는 體制自體의 필요성을 充促시킨다」는 견해는 바로 그 視覺에 있어 위의 입장과 일치한다.

위의 물음에 대한 두번째 해답은 全體主義의 政權의 動態의 行態의 淵源을 주로 이데올로기적 動機에서 찾아 보려는 입장이다. Inkeles가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神秘」(ideological 'mystique')라는 概念을 통하여 全體主義의 본질에 接近하는 경우나, Arendt가 강조하는 「supersense」의 의미, 혹은 Friedrich가 全體主義의 「레러」의 動因을 이데올로기적 熱狂(ideological fanaticism)속에서 구하려는 입장들은 바로 이러한 해답의 範疇에 속한다.

그러나 全體主義라는 政治現象속에 表出되는 動態性的의 原因을 단순히 體系自體의 필요성이나 이데올로기적 動機로써 해명하려는 입장은 全體主義 現象속에 담겨져 있는 個人的 要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Tucker는 全體主義의 獨裁者의 퍼스낼리티가 그 政治體系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여 獨裁의 意思決定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動機要因은 스탈린이나 히틀러類의 偏執型的의 퍼스낼리티(paranoial personality)임을 주장한다. Tucker의 설명에 의하면 蘇聯에서 1936 - 1938 년간에 있었던 大肅清은 體制自體의 입장에서 볼 때

體制의 機能的 必要性에 立脚한 反應現象이었다기 보다 이는 오히려 극히 逆機能的인 사건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現象은 스탈린 자신의 精神病理學的 要因을 捨象하고는 전혀 해명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²⁾ 이렇게 볼 때 既存의 全體主義 理論模型은 거개가 全體主義의 獨裁者의 퍼스널리티 類型을 그 概念構成에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脆弱點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全體主義 理論模型의 中心概念 (key concept)은 한마디로 權力 (power)이라는 용어속에 집약될 수 있다. Friedrich와 Brzezinski가 이른바 全體主義的 獨裁의 특징으로 나열한 다음의 여섯가지 요소는 모두가 힘에 의하여 강제되는 疎外體制 (alien system)의 가장 뚜렷한 징표들인 것이다. (官制 이데오로기, 獨裁者에 의해 領導되는 單一 大衆政黨, 暴力的 警察統制制度, 메스콤獨占, 일체의 有効武器의 獨占, 經濟의 中央集權的 統制) 따라서 權力概念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政治 내지 社會現象이 대두되는 경우 全體主義 내지 全體主義的 獨裁概念은 그 分析 能力에 한계가 이르게 된다.

2. 2. 變動·發展模型

2.2.1. 새로운 理論構成을 위한 試圖

1950年代末부터 1960年代에 진입하면서 比較分析의 基礎範疇로

註 2) R. C. Tucker,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 1955), p.-567.

서 全體主義概念의 理論的 不適合性에 대한 論議가 자못 비등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全體主義 分析模型은 比較概念 (comparative concept) 으로서 的 활용도가 무척 낮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유용한 比較概念은 적어도 두가지 識別機能, 즉 類似現象간의 상이점을 밝힐 수 있는 機能과 相違現象간의 유사점을 밝힐 수 있는 機能을 遂行할 수 있어야 하는데 全體主義 模型은 이러한 점에서 그 한계성이 들어 낫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全體主義에 관한 既存의 概念構成은 우선 類似現象으로 파악된 共產主義와 파시스트현상간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 주지 못할 뿐더러, 이들 全體主義 政治現象과 최근 發展途上國家 중에서 그 예가 점차 增加하고 있는 이른바 民族主義的 單一政黨體系 (nationalist single party system) 간의 유사점 내지 상이점 또한 밝혀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比較政治, 比較社會學 分野에서 全體主義概念이 평가절하된 두번째 계기는 이미 1950年代 후반부터 本格화된 蘇聯 政治動態의 급격한 變化, 특히 그 脫全體主義化 경향과 共產圈内部의 多元化, 多中心化 경향이다. Brzezinski는 특히 스탈린 이후 이른바 體系的 「테러」가 자취를 감춘 蘇聯의 새로운 政治狀況에 직면하여 급기야 「合理主義的 全體主義」 (rationalist totalitarianism) 라는 모호한 概念까지 創案하고 있으나 그 論理的 說得力은 강한 편이 못된다. 이렇게 볼 때 全體主義概念은 역사적으로 한정된 (historically limited) 理論模型이 아니냐는 회의에 찬 反

論에 부딪치게 된다.

全體主義 模型은 특히 1960年代에 들어 오면서 또다시 새로운 비판에 표적이 되고 있다. 새로히 고개를 든 비판의 論題인 즉 靜態的인 全體主義概念은 무엇보다 共產主義社會의 變動 내지 發展과 그 결과를 概念化하기에 극히 適合하지 않다는 점이다.

全體主義概念에 대한 위의 비판중 그 첫번째 論議에 대한 回答으로 제기된 理論模型中 대표적인 것이 R.C. Tucker의 이른바 「大衆運動政權」(mass movement regime)의 概念이다.³⁾ 이는 「單一政黨 主導下의 革命的 大衆運動政權」(the revolutionary mass-movement regime under single party auspices)의 略稱으로 그 範疇內에 共產主義와 파시스트 政治體系는 물론 民族主義的 單一政黨體系까지 수용하고 있다.

Tucker의 설명에 의하면 大衆運動政權의 첫번째 특징은 그「革命的」(revolutionary)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는 革命的 争鬪過程에서 생성되고 또 한번 政權의 토대가 굳혀진 후까지도 계속 革命的 慣性(revolutionary momentum)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독특한 屬性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革命的 運動으로서의 大衆運動政權은 계속적으로 國家的 刷新을 도모하거나 혹은 혁명수출을 통한 혁명의 세계화를 꾀한다. 또한 양자를 동시에 追求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이데올로기는 革命的 哲學이자

註3) R.C. 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s-Regimes", APSR, (, 1961), pp.

革命的 鬭爭의 프로그램역할을 담당한다. 이 政權의 두번째 특징은 그 「大衆運動」의 기반이며, 세번째로 이는 「마리탄트」한 집권적 革命政당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政당은 政治的 權威의 새로운 기초일 뿐더러 그 細胞組織은 새 國家의 下部構造 (infrastructure) 를 형성한다. 大衆運動政權模型은 또한 그것이 地域的 限界概念이 아니므로 東西方 혹은 發展途上國家를 莫論하고 世界 어느 곳에서나 出現할 수 있음이 특징이다.

比較分析의 道具로서 大衆運動政權의 概念은 특히 革命的 政治的 動機 (motivation of revolutionary politics) 와 革命的 動態性 (revolutionary dynamism) 의 차이 속에서 共產主義 및 파시스트체제와 民族主義的 單一政黨體制간의 상위점을 밝혀 주고 있다. 즉 民族主義的 單一政黨體系는 대략 獨立과 近代化를 追求하나 흔히 舊社會基盤을 完全히 革命化하기 이전에 그 革命的 動態性的 消盡現象 (phenomenon of extinction) 이 찾아 들 개연성이 높은 데 反하여 共產主義運動政權의 경우 革命的 動態性的 수출 내지 세계화를 계속 推進하므로 그 政治的 力動性を 계속 지키기에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파시스트 政權의 動態的 단면 또한 그 나름의 超國家的 (supra-national) 屬性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大衆運動政權의 概念은 주로 역사적으로 한정된 특정 政治現象의 分析에만 집착했던 既存의 全體主義模型에 비해 한걸음 앞선 감이 없지 않으나, 이 또한 共產主義 社會體系 自體의 비교 연구를 위한 理論模型으로는 지나치게 그 抽象化의 수준이 높고

따라서 共產主義體系의 多元化現象을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精緻한 概念이 못된다. 大衆運動政權模型은 또한 革命的 動態性的 動機 및 그 維持와 消滅現象에 적절한 관심을 표시하나 體制의 變化 내지 발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分析的 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脆弱點을 면하기 어렵다.

Tucker의 理論模型이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카바하기 위한 일단의 시도는 소위 中範圍理論 (middle range theory) 構成을 위한 노력으로 표현된다. 그 예의 하나가 F. Heady의 共產主義體제의 官僚制 分析이다.⁴⁾ 그는 比較行政學의 立場에서 官僚制의 類型分析에서 「共產主義的 全體主義體系」(communist totalitarian system)라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特色으로 高度로 複合的인 行政機構와 이에 대한 党的統制의 면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컨대 党階層制와 行政階層制를 이른바 二重兼職裝置를 통하여 밀접히 연결함으로써 党的統制를 강화하고 이로써 政治的 行政侵蝕을 완전무결하게 제도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研究의 特色은 共產主義社會의 下位體系인 官僚的 行政體制를 獨立된 比較概念으로 포착하므로써 既存의 包括的이며 추상적인 理論模型이 보여주는 모호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共產主義的 全體主義社會의 政治 및 行政過程에서 表出되는 「党性」(Red)과 「專門性」(Expert)간의 葛藤關係를 통하여 이들 社會의 變動可

註4) F. Heady,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Perspective.

能性과 變動의 震源을 밝히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할만 하다.

共產主義體제의 多元化, 大衆深化現象은 소비엘 一辺倒의 共產圈研究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東歐諸國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그 社會體系分析을 위한 독특한 理論構成의 필요성이다. 또한 中共에 관한 暴露의인 관심 또한 이미 1950年代부터 본격화되었다.

東歐에 대한 研究中 代表的인 것이 H. Gordon Skilling의 [The Governments of Communist East Europe] (New York 1966)인데, 여기서 저자는 東歐諸國에서 나타나고 있는 非[쏘련]型 政治現象을 예리하게 分析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鞏權엘리트와 大衆만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던 東歐의 정치과정에 나타난 變異이다. 즉, 東歐의 경우 나라마다 편차가 크나 적지않은 수의 利益集團들이 정치과정에 投入되어 政治의 규제자로 汗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東歐에서 두드러지게 表出되고 있는 현상의 하나는 共產化過程에서 강요되고 틀이 짜여진 集産體제가 이제 심한 도전을 받아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즉, 그 대표적인 예인 [유고]의 경우 [Kolkhoz]타입의 集團農場이 빛을 잃고 農民中 대부분이 私經營형태의 영농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차츰 자유경쟁적 시장제도의 특징이 되살아나는 결과를 맺어 이른바 [自由放任的 社會主義] (laissez faire socialism)

라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반의 변화양상은 大衆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주고 이는 國際社會의 큰 흐름인 「脱이데올로기」경향에 부채질하는 결과를 맺고 있다. 특히 西洋文化의 傳統價值(自由, 信仰, 民族主義)의 殘影이 남아 있는 東歐圈의 경우 變化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특히 知性文化의 反體制的 憤出)은 「自由化」의 물결은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전망되는 것이다.

中共에 관한 研究는 그 수량적 풍성함에 비해 독특한 理論構成의 努力은 不足한 감이 없지 않다. 다만 현대중공의 政治양식을 이해함에 있는 中國의 전통문화의 배경을, 특히 政治文化의 관점에서 分析할 필요가 두루 인식되고 있고 또한 산업화과정에 수반되는 社會變化現象에 대한 보다 集中的인 研究가 要求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새로운 理論模型을 定立하기 위한 몇몇 시도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전체주의모형의 靜態性和 그 歷史的 限界性에서 脱皮하기 위하여 점차 共產主義社會의 革命的 動態性的 淵源 및 그 展開樣式과 이들 社會의 變化 내지 發展過程에 부단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60年代 후반부터 새롭게 부각되는 共產主義體制的 分析模型은 A. Inkeles의 表現을 빌려 發展模型(development-model)이라 稱하여 본다.

2.2.2. 共產主義的 動員政權

發展模型의 範疇에 넣을 수 있는 적지않은 理論模型中 代表的인

것으로 The American Council Learned Societies]가 1968年 「共產主義의 比較研究를 위한 企劃委」를 구성, 그 연구성과를 1970年刊의 「共產主義體制의 變化」(change in communist systems : Chalmers Johnson (ed.), Stanford Univ. Press)에 반영시킨 「動員政權」(mobilization regime) 모델이 있다. 이는 이미 拙稿 「北韓 社會文化體系의 經驗의 分析과 變動 모델構成, 1972.12. 國土統一院」에서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보겠다.

既存의 全體主義模型이 주로 「權力」概念과 연결되는데 비하여 動員政權模型은 그 分析의 초점이 「變化」에 놓여지며 이때 제기되는 의문 또한 「어떻게 변하는가?」 또 「왜 변하는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일정한 政治體制가 革命的 ایده올로기를 표방하는 경우 흔히 두 가지 文化內容을 包含하게 되니, 그중 하나는 ایده올로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유토피아」의 影像으로서의 目標文化(goal culture)이고 다른 하나는 이 目標文化에 接近하기 위한 政策規範的 內容을 지닌 移轉文化(transfer culture)이다. 뒤늦게 共產化의 길을 걷는 초기 革命政權들은 移轉文化의 內容을 확정함에 있어 蘇聯을 準範集團으로 삼게 되나 이후 발전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변조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볼 때 초기 공산정권들은 經濟發展을 가장 중요한, 또 包括的인 移轉文化目標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이른바 動員體制(mobilization system)을 構築한다.

動員이란 그 사회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굴, 활성화하는 목표추구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자연 權力的 側面과 연관되고 似而非 大衆目標을 강요하는 專斷的 리더십은 全社会的 動員을 확보하기 위하여 全體主義的 政治樣式을 본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全體主義的 動員體系는 그 階層制의인 統制秩序를 통하여 大衆들의 疎外化를 재촉하게 되나 한편 그것이 강제를 통하여 近代化의 利得을 創出하는 側面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共產主義的 動員政權의 경우 經濟(發展)分野와 같이 公認(指定)된 부문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動員化(ruthless mobilization)를 강행하나 政治와 社會分野를 같은 非公認化된 부문에 관하여는 이와 반대로 무자비한 非動員化(ruthless demobilization)政策을 구사하므로 이는 全體社會的 發展(societal development)이라는 脈絡에서 볼 때 극단적인 不均衡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動員體制의 明暗, 즉 그 刷新的 側面과 退嬰的 側面의 共存現象은 끝내 體制의 均衡을 요구하는 社會的 壓力을 분출시키고, 이는 全體主義的 政治樣式의 한계인식으로 물고 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 대두되는 全體主義的 動員體制의 解體可能性은 주로 두가지 주요인자와 연관되는데, 이는 첫째 革命的 엘리트의 官僚化現象(bureaucratization)과 둘째 全體社會의 複合性과 機能的 分化의 增加現象이다. 이들 두가지 變化의 촉진요인은 실상 動員體制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전개의 결과로써 動員政權의

근대화전략이 어느정도 성공하여 公認된 動員分野에서 기대했던 變化가 이루어 지는 단계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全體主義的 共產政權이 動員政策의 실현수단으로 마련했던 수많은 官僚組織은 動員過程의 전개에 따라 점차 전문화, 관료제화를 深化시키고 끝내 이들간의 相衡的 利害關係의 競合現象은 이른바 「엘리트間的 官僚政治」(intra-elite bureaucratic politics)를 낳고 여기서 政治發展의 싹이 트는 것이다. 또한 動員政權의 移轉文化가 추구하는 근대화의 성공적 진전은 전체사회의 복합성을 증가시키고 機能分化된 役割構造를 보편화 시킨다. 이때 政權은 극심한 逆機能을 산출시키는 「테러」와 같은 통제방식을 완화시켜 기본적인 發展의 不均衡을 교정해야 한다는 상승하는 요구에 문을 열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閉鎖的이고 自足的인 經濟體制는 自律性和 競爭性을 특징으로 하는 開放的이고 刷新的인 經濟體制로 변모하게 되고 政策的 관심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참여 복지 문제등 개개인의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수단의 개발과 연관되는 社會發展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⁵⁾

위의 理論模型은 초기의 共產主義的 動員政權의 형성과정과 그 動員政策의 전개과정을 밝힘으로써 共產主義體制의 社會變動 내지 발전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공인된 동원부문인 經濟發展이 물론 을 여타부문(정치, 사회)의 不均衡的 發展의 교

註 5) 안병영, 「北韓社會文化體制의 經驗的分析和 變動모델構成」,

國土統一院 (1972.12), pp. 41-69.

정문제에 관한 한 아직 이렇다할 歴史的 선례가 없으므로 이는 아직 假說的 命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共產社會의 變動問題와 연관하여 興味있는 社會學的分析의 例가 W.D. Conner의 「政治」와 「社會」의 葛藤理論이다. 그는 특히 最近 蘇聯社會內에서 일고있는 심각한 政治的 異議 (political dissent)와 연관하여 그 原因을 政治體 (polity)와 社會體 (society)간의 모순에서 찾고 있다. 즉, 蘇聯社會가 ① 발전의 높은 수준에서 보여 주는 社會의 構造的 分化 (structural differentiation)와 이에 따른 社會的 複合性의 增大현상에도 불구하고 ② 이들 분화를 거듭하고 있는 社會的 諸部門간의 統合을 위하여 政治的 指導體系는 계속 「中央集權的 命令支配樣式」 (centralist-command mode)를 고집하고 있다는 分析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政治와 社會간의 심각한 內燃現象만을 지적할 뿐 앞으로의 變動의 方向이나 발전過程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⁶⁾ 다만 여기서 明白한 것은 共產主義社會의 경우, 全體社會的 動員을 주도하기 위하여 뒤늦게 까지 全體主義的 政治樣式을 답습하는 政治體의 경우보다 산업화과정의 직접적인 영향력하에 있는 社會體가 變動에 더욱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變動을 위한 社會的 잠재력의 母胎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註6) Walter D. Conner, 'Dissent in a Complex Society : The Soviet Case',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3) pp. 34-40.

실상 共產主義體制에 관한 理論模型을 構成하는 경우 흔히 그 準拠가 되고 있는 蘇聯의 政治體를 보는 視角은 일정하지 않다. 우선 위에서 살펴본 Conner의 입장이나 J.A. Armstrong 등은 蘇聯의 政治體制를 中央集權화된 命令支配體制로 규정하는데 反하여 Brzezinski 등 일단의 學者들은 이를 「寡頭制的 化石化」(oligarchic petrification) 현상으로 파악한다.⁷⁾

이는 長期화된 命令支配體制가 빚어내는 Immobilism의 側面으로, 하향적 권력행사에만 급급하는 頂上級 官僚들의 行態는 社會變動의 媒介가 뚜렷한 動的 政治指導層의 그것이라기 보다 權力保存과 官職에의 執着한 일삼는 事務員(clerks)類의 化石화된 行動志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黨과 國家의 硬直화된 官僚體制(ossified bureaucracy)는 아직도 敎條的인 黨이데올로기를 중시하나 그것이 새로운 刷新과 연결되지 못한다. 이 경우 정치적 리더쉽은 집단적 指導體制일 수 있다. 이러한 化石화한 보수체제의 특징의 하나는 「軍 및 重工業 官僚들의 相對的 優位」(the relative supremacy of the defense and heavy industry bureaucracies over the others.) 현상이다.

위의 입장과는 거의 반대되는 觀點은 이른바 「制度的 多元主義」

註 7) J. F. Hough, 'The Soviet System, Petrification or Pluralism?',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2), pp. 27-29.

(institutional pluralism) 理論模型이다. 이에 의하면 소련과 같이 성숙한 共產主義體制는 産業化에 의하여 創出되는 일련의 動態的 變化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련의 전문적 官僚들은 化石化 模型에서 주장하는 보수적 官僚라기 보다 刷新의 원천이 되는 西歐의인 기능적 전문가 (functional specialists)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政治現象은 上向的 影響力의 투사가 가능한 參與的 官僚制 (participatory bureaucracy) 의 대두 경향이니, 즉 政策決定이나 통제과정 속에서 다양한 집단활동과 이들간의 이익상충과 조정등이 이루어 진다는 전제로써 비록 그것이 공식적인 제도적 틀속에서 전개되기는 하나 社會의 폭넓은 欲求에 대해 어느정도 対応의 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제도적 영역마다 자기 자신의 이익체계를 형성하고 그와 연관되는 政策論議에 參與하게 되고 黨은 점차 이들 상충하는 利益간의 조정자 (broker) 역할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制度的 多元主義는 權威主義와 古典的 多元主義의 중간에 위치하며 그 政策志向性은 漸增的 (incremental) 인 성격을 띠게 된다. 蘇聯社會를 제도적 다원주의로 설명하려는 경우 Conner 나 「寡頭制的 化石化」模型이 천제하는 政治體와 社會간의 심각한 葛藤現象은 오히려 부정되어야 할 論理的要求가 뒤따른다.

J. F. Hough 의 分析에 의하면 현재의 소련사회는 화석화된 관료제적 경직화현상과 제도적 다원주의의 면모를 얼마간 함께 보여

주고 있으므로 一中折一式의 選擇은 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一般的으로 變動·發展模型은 주로 共產主義體制의 變動過程을 설명하기 위한 理論인데 반하여 여기서 살펴 본 「과두제적 社會化」 理論이나 「제도적 다원주의」의 立場은 주로 그 역점이 變動·發展의 과정적 측면보다 오히려 발전의 결과 설명에 두고 있다. 따라서 뒤에 論하는 「産業社會模型」(2.3)과 密接히 연관된다.

2.2.3. 社會變動의 一般理論

위에서 주로 共產主義社會의 變動 내지 발전과 연관된 代表性的 理論模型을 살펴 보았거니와 여기서 社會變動에 관한 一般理論을 간략히 概觀하므로써 變動問題에 관한 理論的 토대를 보다 확실히 다져 보기로 한다. 여기서 論議되는 理論的인 內容 역시 拙稿 「北韓社會의 變動可能性과 自由化方案에 관한 研究」(1972.8. 國土統一院) 第2章 第1節에서 詳述하였으므로 그 主要는점만 여기에 추려 본다.

1) 파슨스(T. Parsons)의 立場

靜態的 均衡論의 立場에서는 파슨스도 최근에 의서는 社會의 構造變動의 問題領域까지 깊숙히 관심을 표명한다. 파슨스에 의하면 複合的 社會體制의 潛在的인 構造變動의 原因을 外生的인 것과 內在的인 것, 또 이들 양자의 複合的인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

社會構造의 外生的 要因은 우선 그 社會의 第1次的 환경으로써 유기체 체계, 퍼스널리티 및 文化體系의 內的變動 및 이들 第1次的 환경에 의하여 증개되는 물리적 環境(예: 國際社會)의 變化를 들

수 있다. 다음 社會體制의 내생적인 變動을 表現하는 가장 일반화된 概念은 「緊張」이다. 긴장은 전체 社會를 형성하는 들 혹은 그 이상의 하위체계를 간의 「投入」(input) - 「産出」(output) 관계의 不均衡을 뜻하는 것으로 體制의 均衡을 뒤흔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緊張은 그 정도가 낮을 경우 體制內的 吸收가 가능하나 그것이 高調化되면 規範文化의 變化를 뜻하는 社會의 構造的 變化를 유발한다.

그에 의하면 안정된 社會體制는 內的緊張의 대부분을 吸收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低位의 統制水準에 作用하는 內生的 내지는 外生的 變化를 適時에 中性化시킬 수 있다.

따라서 體制를 苛란시키는 要因에 加해지는 통제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構造變動의 가능성은 크리라는 命題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그는 社會構造를 설명해 주는 주요한 分析的 概念(價值的位階秩序, 專門化된 規範, 組織化된 集團 役割) 중 組織化된 集團이 體制의 目標설정, 統合 및 制度維持에 加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것을 강조하여 指導的 階層의 集團組織의 變化가 構造變化에 미치는 영향을 증시한다.

경) 다렌돌프(R. Dahrendorf)의 입장

葛藤理論의 代表的 理論家인 다렌돌프는 社會的 葛藤의 연원을 우연성을 지닌 특정한 歷史的 事實이나, 인간의 공격심리에서 찾기 보다는 이를 社會的 構造要素(soziale strukturelement)에 환원시켜 根本的으로 규명해 볼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社会的 葛藤의 構造의 淵源을 組織體(全體의 내지 部分的 社会團體)內的 支配關係(Herrschaftsverhältnisse)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모든 집단은 일종의 支配集團으로서 集團內에서의 役割은 積極의 支配役割(positive Herrschaftsrolle)과 消極의 支配役割(negative Herrschaftsrolle)로 크게 나뉘운다.

그는 集團內의 積極의 支配役割担当者와 消極의 支配役割担当者간의 關係가 단순한 準集團(Quasigruppe)간의 關係에서 利益集團간의 關係로, 또 이들 利益集團간의 葛藤이 支配關係의 變化와 國內 社会構造의 變化로 까지 물고 갈 수 있는 諸條件(組織化的 條件, 葛藤의 條件, 構造變動의 條件)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葛藤理論을 全體主義 社会的 社会變動을 해명하는데 적용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그는 우선 「葛藤의 條件」부터 論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主要變數인 社会的 流動性과 效率的인 規制 메카니즘은 全體主義 社会內에서도 存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共產社会에서 볼 수 있는 尙殘된 肅清은 支配權의 担当者의 교체(부분교체)를 통하여 社会的 流動性을 높임으로써 社会的 葛藤을 弱화시키려는 시도이며 국가정당 내외부에서 政策決定과 연관되는 討論을 體系的으로 促進하는 경우도 그들 특유의 效率的인 規制 메카니즘인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전체주의 國家는 그 指導層의 閉塞과 討論의 抑壓으로 社会的 流動性을 낮추고 葛藤조정을 위한 規制 메카니즘의 개발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짙음은 물론이다.

다음 構造變更의 條件은 적극적 지배역할집단의 「버티는 능력」과 소극적 지배역할집단의 「압력의 잠재력」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全體主義의 社會의 政治的 葛藤은 支配層의 보다 완전하고 급격한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파슨스는 판단한다.

끝으로 組織化의 條件을 살펴보면 全體主義 國家의 경우 사실상 소극적 지배역할집단이 自律的으로 組織化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잠재적 葛藤集團의 暴發的 분출(예 : 1953年 베르린 폭동, 1956年 헝가리의거)이 구조변경으로 결실되지 못한 이유도 이와 연관된다. 따라서 전체주의 사회의 경우 오히려 構造變革의 可能性이 흔히 유일한 合法화된 組織體인 國家政黨自體에서 찾아지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3) 에치오니(A. Etzioni)의 입장

巨視社會學的인 입장에서는 에치오니는 全體社會的 變動은 항상 計劃된 變動과 計劃되지 않은 變動과의 混合樣態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정사회가 자신의 의도하는 方向으로 變化를 주도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自己操縱能力」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는 이를 體制의 「活性度」라고 설명한다. 그 社會의 활성도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그는 情報能力, 權力 및 同意를 예거하고 앞에 들을 統制要因으로 뒤의 것을 同意形成으로 나누어 分析한다. 이때 統制要因은 주로 統治者의 입장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입장인데 반하여 동의형성의 次元은 피치자가 주도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變數라고 설명된다.

그가 「統制」와 「同意」의 두 요인을 중심으로 마련한 네가지 社会類型 (active society, passive society, overmanaged society, drifting society) 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이른바 能動社会 (active society)이다.

이 경우 統治者는 輿情도는 높으나 大衆을 소외시키지 않는 比較的 유연한 권력행사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社会는 또한 高도의 情報能力을 구사하나 정보의 산출자가 政策決定 엘리트만을 意識하는 것이 아니라 大衆의 同意형성과정과 계속 연관을 맺음으로 效率的인 통제와 합의의 메카니즘을 構築하고 있는 예이다.

이에 비해 全體主義的 政治樣式을 答復하고 있는 共產主義社会는 이른바 過渡操練社会에 속하는데 이 경우 高도의 통제와 저위의 同意수준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극단적인 소외화를 惹起시키는 權力이 행사되기가 일수이 고 가능한 한 規範的 權力을 動員하고자 試圖하나 이것이 강제적 方法에 依存하므로 그 效率을 弱화시키고 結果적으로 이러한 社会의 자기전환능력 是 約을 면치 못하게 된다.

에치오니의 社会變動 理論展開에 있어서 우리 의 관심을 끄는 것 은 위의 예에서 본 全體主義的 과도조정사회 의 變化의 可能性과 그 方向의 문제이다. 그는 이러한 類型의 社会도 그 統制手段인 強制的 暴力과 宣傳등을 教育(教化)과 利益定向的 權力行使로 전환시킴에 따라 能動社会의 類型으로 變化될 수 있음을 強調한다. 물론 이 理論模型은 社会變動을 說明하는 理論構成은 아니나 統制

樣式의 變化가 가져 올 社會의 自己操縱能力의 개발 可能性을 示
사하는 것으로 共產體制의 社會變動研究에 좋은 指標를 提供한다.

2.3. 産業社會模型

위에서 살펴 본 全體主義 理論模型이나 發展模型은 주로 共產主義體制의 과거나 현재를 밝히기 위한 理論模型인데 반하여 産業社會模型 (industrial-society model)은 오히려 그 역점이 미래에 놓여 지는 理論模型이다. 즉 共產主義的 動員政權의 近代化政策이 實現되어 그 社會가 産業社會로 轉化되는 경우 그 社會가 보여 줄 未來像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물론 대부분의 夢魘 내지 발전모형은 이번 체제와 변동이나 발전과정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論理體系를 갖추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고찰한 바 있다.

産業社會模型에 관한 가장 고전적 이론은 P.A. Soroki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 E.P. Dutton, 1944)에서 비롯한다. 그는 이미 1944년에 두개의 社會를 比較分析한 후 「經濟적으로 또 政治적으로 두나라는 점차 유사한 형태의 社會組織과 經濟類型으로 收斂 (convergence theory) 한다」고 밝히므로서 巨視的 立場에서 살펴 본 比較社會學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 理論模型의 문제점은 이를 뒷받침해 줄 완전한 의미의 역사적 선풍이 없으므로 朝鮮이나 東歐와 같은 보다 産業化된 성숙된 共產主義體制에서 豫示되는 變化의 前奏曲이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産業社會模型의 특색은 그것이 위에서 살펴 본 다른 이론모형과 달리 權力概念이나 政治 내지 政治發展의 概念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거나 혹은 이를 매개로 하여 주제에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의 초점을 大規模의 産業社會의 特種적 要素인 「크기, 複合性, 形態 등과 教育, 階層化, 都市化, 커뮤니티 조직, 社會的 流動性, 에스 콤 등 제반의 社會領域」에 맞추면서 이들 要因이 社會秩序과 그 構成員의 행태에 미친 影響력을 分析하려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A. Inkeles는 「조선의 勞働者나 知識人의 태도를 이해함에 있어 그들의 黨史나 人種적 구성등속을 아는것보다 현대적인 大規模의 産業社會의 구조속에 처해 있는 그들의 상대적인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상 美國이나 蘇聯의 經營 支配人層이나 勞働者들은 그 나름대로 生活環境에 있어 적지 않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蘇聯이나 東歐에서 발생을 빚는 西歐社會 취향의 청년문화의 물결등도 産業社會에서 볼 수 있는 公同적인 文化現象으로 파악할 수 있다. 産業社會模型의 概念構成도 變動, 發展模型의 경우처럼 多樣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그 本質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사실상 변동 내지 발전모형과 서로 論理的인 連繫를 맺어 일종의 연속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動員政權의 특징을 보자면 全體主義的 共產主義社會는 産業化過程의 進전에 따라 社會構造의 變革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써 모든 近代化된 社會에서 發見되는 公同的 文化現象들을 광출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들 사회는 産業化의 진전에 따라 全體社會 및 그 組織의 大規模化, 複合化, 專門的 機能分化, 官僚制化, 機械化 등의 현상을 낳고 거대한 도시 콤플렉스와 大衆的 消費文化 등으로 표상되는 현대 産業主義의 확산은 共產主義的 全體主義社會가 갖는 非合理性이나 規範的 강제대신에 産業社會의 合理的인 관행과 대중문학적 性向을 보편화시킨다.

이에 産業社會의 一般的 要請에 부응하여 전문적 技術 내지는 管理能力를 갖춘 엘리트階層의 社會的 成장이 두드러지게 되어 이들 党性보다 專門性이 우세한 새로운 勢力이 점차 行政 및 權力 엘리트로 集中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전문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社會全體의 階層構成에 影響을 주게 되며 이러한 變化의 물결이 일게 되면 支配層과 大衆간의 關係類型에도 變化가 야기될 수 있다. 즉 성과에만 집착하던 執權層은 이제 能率에 신경을 쓰게되고 統制와 抑壓 또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規範的 強制보다는 合理的 說得, 刺戟誘因의 導入이 더 活用되고 분권화에 따른 권한의 위임현상이 더 일반화되게 되며 점차 革命이나 理念보다는 産業社會를 풍미하는 大衆 내지 消費文化의 影響속에 價值體系의 變化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展開은 이른바 收斂理論 (convergence theory)의 기본입장으로 이미 성숙한 共產主義 體制의 경우 그 특징이 점차 부각될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이미 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産業化過程의 진전은 이 理論模型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政治體와 社會間的 關係를 좁혀 주기

보다 오히려 그 괴리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Conner의 입장과 oligarchical petrification의 입장)도 있음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 이렇게 볼 때 産業社會模型이 전제하는 미래적 狀況은 얼마간 지나치게 낙관적 전제위에 자리잡고 있는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變動이나 發展過程과 그 結果를 集約하는 경우 産業化라는 變數以外에 그 社會마다 具體的인 文化的 전제의 類型, 특히 政治文化的 水準 및 또 權力엘리트의 퍼스널리티의 體系, 혹은 환경 (주로 國際政治體系)과의 交涉類型에 따라 社會마다 적지 않은 편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4. 結 論

현대 比較政治理論 乃至 社會理論이 共產主義體制 分析을 위하여 마련한 理論模型들을 北韓社會現象에 적용하는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比較概念으로서의 「全體主義」模型은 그 特征적인 속성에 있어 北韓政治體制를 해명하는데 적지 않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北韓의 政治權力의 특징이나 政治體와 社會間的 關係구조는 전체주의적 獨裁體制의 典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理論模型이 北韓의 政治過程에서 접하는 金日成이라는 政治的 퍼스널리티의 비중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점과 北韓에서 進行되고 있는 社會變動의 動態의 要因과 그 과정을 概念構成에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난점이 있다.

2) 다음 이른바 「大衆運動政權」概念은 革命的 政治運動의 比較分析을 위한 기초범주로서는 活用可能性이 크나, 共產主義體制分析을 위한 精緻한 理論構成을 꾀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 模型은 革命的 動態性的 動因은 설명하나 그 目標追求過程에서 보여 주는 변동과정은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이에 비해 「共產主義的 動員政權」의 模型은 共產主義型的 動員體制가 추구하는 目標體系를 目標文化와 移轉文化的 概念을 통하여 해명할 뿐만 아니라, 獨裁的 퍼스널리티에 의한 目標文化的 變調可能性을 인정하므로써 이들 政權의 革命的 動態성을 多樣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 理論構成의 장점은 共產主義體制的 變動의 震源과 그 過程을 비교적 명세하게 해명해 준다는 것이다.

4) 變動·發展模型의 一環으로 개관해본 「社會變動의 一般理論」은 北韓社會變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준다. 특히 Parsons 와 Dahrendorf 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체제의 경우 정치적 지도체제의 구조변화가 전체사회변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강조한 점과 Etzioni 가 제시한 「過渡操縱社會」의 「能動社會」로의 轉化可能性은 共產主義體制的 社會變動可能性을 研究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産業社會」模型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北韓은 그 産業化의 수준이 아직 低位에 놓여 있다. 또한 北韓의 경우 産業化의 조건이 성숙되는 경우도 그곳에 産業社會 特有의 社會文化的 現象이 일상적 樣태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적지 않은 제어요인이 작

용할 것으로 사려된다. 예컨대 體制變化에 저항할 수 있는 內生的 要因들, 예컨대 權威主義의 政治文化나 北韓이 追求하는 安保目標 등의 素因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한 걸음 앞서 발전한 특정 共產主義社會를 模型으로 北韓社會의 變動可能性을 展望하여 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쏘비열」모형 혹은 「東歐」모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Inkeles의 표현대로 일정 사회의 발전단계를 다른 나라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재구성한다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교정하기 어려운 社會法則的 變遷에 사로 잡히기 쉽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一般理論的 認識의 틀속에서 특정 社會發展의 模型을 정립하고 여기에 해당 사회의 특수한 狀況變數를 客觀的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類型의 理論模型 또한 매우 实效性있게 活用될 수 있다. 8)

註 8) 安秉永, 北韓政治體系分析에 대한 現代比較政治理論의 適用, 政經研究 (1974.6.), pp. 66-83

3.北韓社會의 變動論의 接近

3.1. 變動의 震源

北韓社會變動의 震源을 크게 나눌 때 네가지 줄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1)北韓이 追求하는 革命的 이데올로기(마르크스, 레닌主義), 2)金日成 自身の 퍼스널리티와 이에서 연유한 이른바 유일사상체제, 3)北韓社會體制의 기능적 필요성 및 4)北韓社會의 환경요인이 그것이다.

물론 위의 네가지 變動의 震源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며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 예컨대北韓의 理念體系의 根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唯物論的 價值體系와 이를北韓現實에 接木한 이른바 金日成 唯一思想體系의 複合으로서, 이들이 주축이 되고 다른 제3, 제4의 變動震源이 작용하여北韓 動員政權의 目標體系를 규정한다.

특히 제1, 제2의 變動震源은北韓體制의 革命的 動態性을 제공하는 주요인자로서北韓 動員政權의 革命性의 淵源이 되고 있다.

제3의 變動震源인北韓社會體制의 機能的 필요성은 초기 動員政權의 政策目標을 提示할 수 있다는 점에서北韓 特有의 革命的 動態性과 연관되나 이는 앞으로 豫想되는 動員體制의 深化에 따르는 이른바 不均衡의 發展의 矯正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또한 革命的 動態性의 鈍化要因으로 등장할 수 있다.

제4의北韓社會의 環境요인은北韓體制의 제1차적 環境으로서大韓民國을 포함한 전 국제정치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문

제되는 것은 國際政治社會의 다이내믹스와 이것이 北韓體制에 주는 영향, 또 이에 대한 北韓의 反應등이다. 北韓은 흔히 환경요인을 체제의 革命的 構造化에 이용하여 왔다. 따라서 體制內的 欲求不滿과 공격성향의 분출구로써의 환경요인은 北韓 特有的 革命的 動態性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國際政治社會의 複合的인 영향력은 北韓體制의 왜곡된 환경해석을 교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환경요인은 또한 北韓政權의 革命的 動態性的 鈍化要因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北韓社會變動의 震源으로서의 환경요인의 의미는 상실되지 않는다.

위의 論議를 社會變動의 方向이라는 맥락에서 再構成하면 다음과 같다.

1) 變動의 震源으로서의 제1, 제2의 要因은 고도의 革命的 동태성을 수반하며 이는 초기 動員政權의 理念體系, 目標體系 설정에 크게 작용한다. 이들 제1, 제2 요인이 주도적인 變動의 震源으로 작용하는 한 北韓은 全體主義的 政治樣式을 고수할 것이며 變動의 方向 역시 動員政權이 追求하는 移轉目標의 實現 努力과 一致된다.

2) 제3, 제4 요인은 革命的 動態性的 深化要因으로도, 또 그 鈍化要因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들 제3, 제4 요인이 北韓特有的 革命的 動態性을 鈍化시키며 北韓社會의 脫全體主義化的 促進方向으로 社會變動의 軸을 轉移시킬 때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可能性의 實現方向인 것이다. 이들 제3, 제4 요인이

혁명적 동태성의 鈍化要因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動員政權 초기인 體制形成 (system building) 期가 아닌 體制管理 (system management) 期, 내지 動員政權의 不均衡的 發展의 문제점이 표출되는 그러한 시점부터일 것이다.

3) 제 3, 제 4의 變動震源이 體制의 革命的 動態性的 鈍化要因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는 제 1, 제 2 요인의 屬性變化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 體制의 全體主義的 動態性은 이후 強力한 制御要因의 도전을 받게되는 것이다.

4) 그러나 제 4의 震源인 環境 요인은 특히 제 1 차적으로 南北 韓關係하는 맥락에선 살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이 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않는 한 이는 北韓의 革命的 動態性을 深化시키는 方向으로 계속 작용할 확률이 크다.

이상의 論理體系 밑에서 北韓의 社會變動을 야기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 결정변수의 추출작업을 위하여 편의상 아래와 같은 구성을 피하여 보았다.

1) 理念體系分析

2) 社會體制分析

A. 政治體制

B. 經濟體制

C. 社會文化體制

3) 環境要因分析

3. 2. 理念體系

이미 前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理念體系는 그 社會의 目標體系와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서 叙上의 네 가지 變動震源 중 제 1, 제 2 요인이 目標體系分析에 있어 가장 重要시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南北關係의 특수성과 결부된 赤化統一觀때문에 제 4의 變動震源인 환경요인의 目標體系構成에 작용하는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을 뿐더러 北韓 動員政權이 추구하는 發展政策의 展開方向 설정에 있어 제 3 요인 또한 주요 변수로 등장된다. 이렇게 볼 때 北韓政權의 目標體系는 모든 變動震源(要因)의 複合的인 作用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설정된 目標體系는 또한 社會變動의 促進要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制御要因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 1 요인인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北韓 政治體制的 最終目標 설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北韓政權은 近代以後 世界史가 경험한 가장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의 影像, 다시 말하면 Wallace의 目標文化의 表現에 體制的 存在意義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 共產政權의 최종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이른바 「國家가 조작하고 각인이 자기의 能力에 따라 일하고 需要에 따라 分配받는」 이른바 完全한 意味의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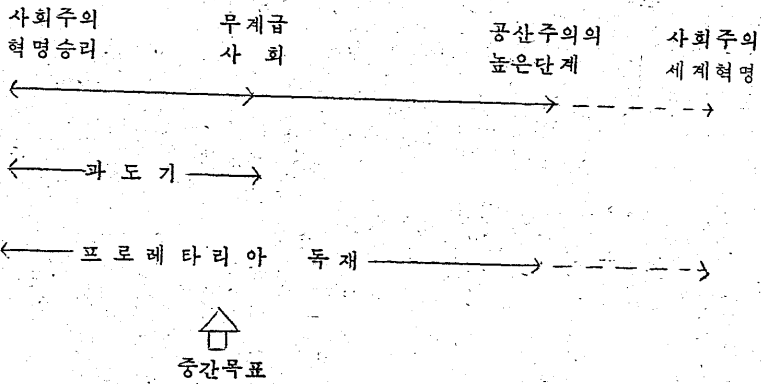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최종목표의 概念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抽象性

과 虛構性때문에 이로 부터 現實的인 政策規範을 도출할 수 있는 現實操作性(operationality)이 약하다. 다시 말하면 最終目標은 一種의 公式目標(official goal, stated goal)의 의미는 강하나 實質目標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애가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政治的 目標體系를 규명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下位目標로서 일종의 中間目標를 설정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와 같이 일단 막강한 一人獨裁體制가 構築되어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中間目標의 概念이 이데올로기적敎義 자체에서 演繹의으로 도출되기 보다는 獨裁者의 專斷的인 自己解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北韓政權이 追求하는 中間目標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金日成 자신의 견해, 해석에 의존할 必要가 있다.

金日成은 1967年 5월에 행한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관하여」라는 標題의 연설에서 北韓政權이 追求하는 中間目標로서 이른바 無階級社會를 거론하고 있다. 즉 그는 이 연설에서 「마르크스」이래 階級論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時期的 區劃에 대하여 자신의 해석을 加하면서 과도기의 界線을 無階級社會까지로 긋고, 「우리가 社會主義 建設을 進진시켜... 勞動階級과 農民의 차이를 없애고 無階級社會를 建設하게 될 때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로의 과도기의 임무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야 의하면 「프

로레타리아 독재」는 無階級社會가 成就된 이후에도 이른바 「共
 産主義의 높은 단계」까지, 또 「社會主義 世界革命」이 完成될 때
 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이때까지 國家도 殘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아울러 그는 北韓이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로의 과도
 기에 있음을 밝히고, 「우리나라는 資本主義 革命을 거치지 않았
 기 때문에 生産力이 매우 떨어져 있으며, 勞動階級과 農民의 차
 이는 社會主義革命을 한 후에도 매우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것입
 니다」라고 설명한다. 그의 논점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추구하는 최종목표를 위의 도
 표에서 共産主義의 높은 段階 내지 社會主義 世界革命의 段階로
 잡을 때, 이는 실제로 그 非現實的 성격때문에 상징적인 목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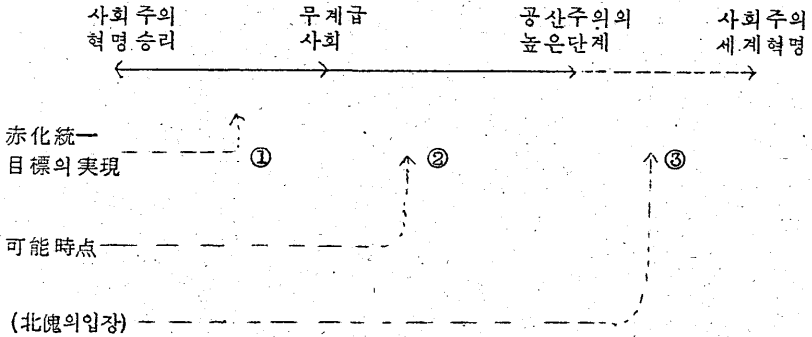
註 1) 安秉永, 「北韓社會文化體系의 經驗的分析과 變動모형構成」,
 前掲書, p. 16.

意義가 두드러 진다. 金日成은 이렇듯 國家라는 強制機構의 機能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실제로 도달 불가능한 이상세계에 가지 확대시킴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른바 「國家死滅論」의 이상을 실제로 말살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재 北韓 共產政權이 追求하는 現實的인 中間目標을 「無階級社會建設」이라는 단계에서 찾을 때, 이는 그들의 설명대로 社會主義完成의 進入時点이며 이 단계에서는 勞動階級과 農民間의 차이가 없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中間目標의 實現時期는 실제로 北韓社會가 追求하는 移轉文化目標의 성공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마련한 目標의 단계적 구성은 실제로 北韓政權의 目標體系를 南北對決狀況아닌 北韓單獨體制狀況 속에서 설정한 것이므로 論議의 現實的 意義를 높이기 위하여는 이의 補完이 필요하다. 즉 現實的으로 北韓이 追求하는 가장 절박한 體制目標의 하나는 이른바 赤化統一이다. 만약 赤化統一을 그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위의 共產主義의 發展段階에서 어떠한 시점이라고 미리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體制自體의 目標追求의 努力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른바 北韓內的 「民主力量」과 南韓內的 「革命力量」 및 國際的인 「支援力量」등 複合的인 要因이 함께 作用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北韓의 赤化統一意志를 그들의 現實的 目標로 받아 들이고 그 실현시점을 北韓單獨體制狀況 속에서 구상한 목표체계 (前述)에 代入한다면 이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의 조합이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例擧된 그들이 追求하는 赤化統一目標의 실현가능 (假定) 시점중 ③의 경우는 여기서 고려될 現實的 意味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는 실현 불가능한 虛構的 상정에 불과하며 이의 現實的 도래가능성은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共產主義의 높은 단계의 世界的 확산을 의미하는 社會主義 世界革命은 고려의 여지도 없는 假想의 狀況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赤化統一目標의 實現可能時点是 ① 과 ②의 가능성으로 좁혀진다.

위의 論議를 摘要하면 다음과 같다.

1) 北韓政權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의 虛構性에 비추어 中間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2) 北韓單獨體制狀況은 가능하면 北韓政權이 추구하는 中間목표는

이른바 無階級社會의 건설이다.

3) 南北對決體制狀況下에서 北韓이 追求하는 또 하나의 中間目標은 赤化統一이다. 그 시기는 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 빠른 수록 유리하나 ②의 中間目標가 實現된 이후의 시점에서든 계속 追求될 수 있는 성격의 現實目標인 것이다.

4) 우리가 北韓社會의 目標體系를 주로 北韓을 統治하고 있는 權力集團의 理念體系로 부터 도출하여 위와 같이 整序할 때 ①의 五階급사회건설목표에 따르는 政策規範目標은 經濟發展으로, 또 ②의 赤化統一 目標에 따르는 政策規範目標은 安保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 共產政權이 追求하는 目標追求의 政策規範의 骨幹은 經濟發展과 安保라는 두가지 초점으로 좁혀진다.

실상 共產主義의 초기 動員體制의 第1次的 移轉文化目標은 거의 예외없이 經濟發展에 집약된다. 그들은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生産關係를 社會主義적으로 개조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제에서 出發하여 「社會主義의 工業化와 人民經濟의 기술적 改進黨을 發展政策의 第1次的 目標로 삼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영역은 國家의 動員化의 공인된 목표분야인 것이다. 그들은 또한 「自立的 工業體制를 確立하므로서만 國家의 工業化를 實現하고 社會主義 建設을 추진시키며 共和國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祖國統一될 때 南朝鮮의 民族經濟를 단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經濟發展을 共產主義의 理念文化의 이상과 연결시키는

물론 이것이 赤化統一戰略의 一環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北韓의 安保目標의 下限은 北韓體制的 存統, 生存이고 그 上限은 赤化統一이다. 經濟發展과 安保라는 두가지의 移轉文化目標은 그들의 目標文化의 추구라는 점에서 相補的인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으나 現實적으로 北韓政權이 제한된 財源으로 두가지 目標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兩者는 相衡的인 관계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北韓政權은 이처럼 과중한 政策規範(移轉文化目標의) 遂行을 위하여 다른 共產主義的 動員政權의 경우 거의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苛烈化한 動員體制를 構築하고 「위로부터의 革命」을 위한 全體主義的 政治樣式을 深化시켜 온 것이다.

위에서 北韓政權의 目標體系의 대강을 살펴 보았거니와 그 내용 구성의 中樞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解析」을 위한 유일한 方法論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金日成의 이른바 「唯一思想體系」와 연관됨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의 「主體」사상은 北韓權力集團이 표방하는 理念體系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에 관하여는 이미 자세한 言及이 이미 筆者의 다른 論文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²⁾ 자세한 설명은 약한다.

그들은 주체사상이 「朝鮮人民의 革命的 伝統」을 계승한 사상이며 金日成 자신이 創案한 지도사상임을 강조하며 주체사상은 政治

註2) 前掲書, pp. 第2章 第1節 金日成唯一思想體系 참조

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자위의 原則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思想의 虛構性은 그의 朝鮮革命觀, 統一觀, 民族觀, 人民觀, 知識人觀에서 명확하게 表出되고 있다. 3)

金日成의 政治的 象徴을 통한 대중조작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상징중의 하나가 民族主義的 상징이다. 사실상 金日成의 이른바 「主體」思想이 노린 心理的 照準點은 바로 「우리 것」에 대한 정서적 감응과 이를 통한 상징조작이라는 側面이다. 金日成이 民族主義的 상징을 즐겨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르크시즘의 外來性·國際性과 연결된다. 마르크시즘은 주지하듯이 西歐的 文化 價值이며 國際主義의 색채가 강한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이를 北韓이라는 傳統的인 社會에 토착화시키기 위하여는 民族主義的 象徴을 통한 敎義의 再解析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民族主義의 象徴들은 이른바 敎條主義의 비판과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우리」 현실에 맞는 유일하게 정확한 共產主義 指導思想』으로 승화시키는데 有益한 戰略武器일 뿐더러 무엇보다 그것이 갖는 統一戰略上的 高度의 活用性은 金日成이 「民族」의 이름으로 數多한 非現實的 統一方案을 제시했던 어언간의 狀況이 이를 밝혀 준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 唯一思想體系는 北韓社會의 혁명적 동태성

註 3) 安秉永, 「金日成主義」의 展開過程은 어떤가, 北韓 (통권 60호 1974.6) pp. 45-54.

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중조작수단이다. 그러나 이는 경직화된 「이데올로기즘」의 차원을 시험하므로 체제의 閉鎖化를 조장하고 외적 충격에 의해 金日成思想의 虛構性이 드러나는 경유는 北韓社會의 「革命的 動態性的 消盡」(extinction of revolutionary dynamism)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主義」의 偶像文化는 北韓體制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취약부분이며 體制變動의 가장 확실한 震源인 것이다.

3.3. 社會體制分析

3.3.1. 政治體制

前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社會變動理論家들이 體制變動의 극적인 계기를 政治體制的 權力構造變化와 연관 지우고 있다. 여기에서는 北韓 政治體制的 變動可能性을 1) 「Leadership Politics」의 向方, 2) 黨·國家官僚體制的 「Red」와 「Expert」 構成變化, 3) 制度的 多元主義의 成熟可能性 및 4) 政治體制的 社會統合力 變化라는 네 가지 變數를 中心으로 論議한다.

3.3.1.1. Leadership Politics의 向方

北韓의 金日成은 집권후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자신을 頂點으로 모든 政治權力을 集中시키는데 성공했다. 그간 그가 겪어온 「피의 肅清」과정과 이에 따른 勞動黨 中央委員會나 그 政治委員會의 委員들의 파벌구성변천을 보면 這間의 과정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北韓 勞動黨에 있어서 黨權의 高度의 집중화경향은 政治委員會 정위원 및 후보위원과 비서국의 비서를 포함하는 總 28個의 職位中 실제 양기구의 구성원은 18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政治委員會 정위원중 거개가 비서직을 兼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北韓 政治權力의 집권화 경향은 비단 勞動黨 內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黨機構와 國際機構간의 二重兼職裝置에 의해 보다 完全한 형태로 심화된다. 北韓의 新憲法에 의하여 신설된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는 그 構成이나 機能에 있어 점차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 委員중 黨政治委員이나 黨秘書 혹은 兩職을 兼하고 있는 자가 과반을 훨씬 넘는다. 또한 北韓의 行政府에 속하는 政務院·閣僚中 주요부서의 長은 거의가 黨의 중추적 人物이다.

北韓에 있어 黨 및 國家官僚機構중 政治權力的 中核機構인 黨 政治委員會 秘書局과 中央人民委員會의 구성직위와 政務院의 총리, 부총리 직위 및 군부의 최고 엘리트로 구성되는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의 職位를 包括하고 이에 「威嚴의 政治制度」에 속하는 最高人民會議 議長의 職位를 덧붙이면 모든 65개의 職位가 추출된다. 이들 65개의 職位는 二重, 三重的 兼職裝置에 의해 占職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職位를 차지하고 있는 실제인물의 數는 30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北韓社會에 있어 頂上

級 政治엘리트로 이해하여도 크게 틀림이 없다. 4)

이들중 頂上階層인 黨 中央委 政治委員會 正委員 12명은 그 社会的 背景, 經歷등에 있어 高度의 동질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일종의 金日成의 分身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구조로 보아 60代에 集中的으로 속해 있으며 그 과반이 정규적 教育을 받지 못했다. 序列 12위의 이근모(經濟通)가 비교적 예외적 존재이나 거개가 계릴라 출신인 이들은 金日成을 상징적 중심으로 한 體制形成(system building)의 主役들이며 따라서 전문성보다는 政治性이 훨씬 우세하다. 金日成이 存在하는 한 強한 내적 결속력을 과시하나 政權承繼의 争占이 부각될 때 자칫 組織解體의 위기에 진입할 위험은 항상 안고 있다. 北韓의 權力 頂上層, 특히 政治委員會의 社会的 流動性은 무척 저위에 머무르고 있다.

金日成은 사실상 北韓社会의 모든 頂上級 權力地位는 빠짐없이 掌中에 넣고 있다. 즉 勞動黨 中央委 政治委員會 正委員(서열 1), 비서국 총비서, 國家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 주석이며 이밖에 黨軍事委員長, 中央人民委 國防委員長, 人民軍總司令權이다. 따라서 그의 權力판도는 黨·國家行政 및 軍事分野를 完全히 석권하고 있다.

金日成의 歸屬主義的(ascriptive) 政治行態는 자신의 神聖化, 카리스마화에 만족치 않고 이를 그의 直系家族 및 親族의 범위

註 4) 安秉永, 「北韓政治엘리트의 構造分析」, 亞細亞研究(제 XVI 권 제 2 호 < 통권 제 50 호 > : 1973, 6), p. 82 참조

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의 權力承繼의 후계로 云謂되는 金英柱, 金正一의 예나 그의 妻 金聖愛의 政治的 중용, 기타 康良煜, 許談 등이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들은 어떠한 共產政權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族閥主義 (nepotism)의 過剩投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를 든 北韓의 頂上級 엘리트 30人中 대부분이 金日成과 특수한 原初的 緣故關係下에 있는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의 帰屬主義的 價值執着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金日成의 一人專制的 要職充員過程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편파성은 金日成 自身の 퍼서넬리티에서 보여주는 偏執症의 症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 構成된 그의 分身集團은 金日成 本人의 偏執症的 病理를 더욱 深化시킬 뿐 체제의 그릇된 思惟過程을 矯正할 수 있는 潛在力을 몸에 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는 金日成 體制的 根本的인 問題點이기도 하다.

金日成의 政治行態에서 들어나는 病理的인 權力集中慾과 帰屬主義的 固着性向은 體制的 閉鎖性과 化石化를 조장하며 자연인 金日成 개인에 대한 體制的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政權의 個人依存度가 높으면 높을 수록 金日成의 죽음은 北韓體制에 심각한 構造的 危機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의 죽음이 물고을 承繼危機 (succession crisis)와 그후 이어질 「Leadership politics」의 屬性에 관하여는 미리 豫斷하기란 不可能하다.

1964년경 比較政治分野에서는 蘇聯의 「Leadership politics」

의 向方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論難이 있었다. 이는 이른바 「安定的 獨裁」(stable-dictatorship) 論者와 「日常的 葛藤」(constant-conflict) 論者間的 견해차이에서 비롯된다. 5)

우선 前者인 安定的 獨裁論者에 따르면 共產主義 政權에 있어 일단 承繼危機가 극복되면 勝利한 指導者는 스탈린적 지위를 향유하게 되고 따라서 만인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경우 일단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대두되면 그의 총애를 거두는 추종자들간의 다툼이 남게 된다는 論理構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全體主義的인 政治的 單極性(political monolith)의 전제위에서 지도자는 政權에의 도전에 관한 한 초월적 지위에 있고 政策 또한 體系內的인 壓力과 葛藤의 결과라기 보다 일종의 지도자 자신의 敎義的 哲學의 創案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경우 자연 지도자의 초월적 지위와 그의 政策執行에 필요한 원력의 公式的 구조에 집착하게 된다.

한편 日常的 葛藤論의 입장은 支配集團內部的 政治的 항쟁은 사실상 성숙한 共產主義的 政治社會의 경우 일상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 社會의 政治過程은 흔히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動態的이며 指導者의 政治的 지위 또한 수많은 要因의 複合으로 이루어진 교묘한 均衡狀態의 表現일 따름인 것이다.

따라서 指導者의 힘의 강도를 결정해 주는 요인은 항상 변하게

註 5) R.C. Thornton, 'The Structure of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July, 1972), pp. 498-500.

마련이며 이는 그의 政治的 利害調整能力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權力的 公式構造란 指導者의 成功의 척도가 되는 「메트릭스」(matrix)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현재 「安定的 獨裁」의 전형적 예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金日成 個人的 政治行態, 퍼스펙티브 및 퍼서넬리티가 北韓 政治過程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그의 退去는 北韓 權力構造 變化의 극적인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金日成 이후의 「Leadership politics」와 연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1) 金日成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경우 그 대상인물이 누구이든 婦屬主義的인 그릇에 의하여 그 權力的 承繼者가 扶하여질 可能性이 크다. 만약 金日成에 의해 발탁되고 金의 生存時 후계역의 政治的 正統성이 北韓의 頂上級 權力集團간에 수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承繼危機의 양상은 달라진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물론, 전자의 경우도 絶對者의 死去에 따르는 심각한 승계위기를 예상할 수 있다. 승계위기가 장기화되고 金日成의 偶像文化에 대한 爭論이 表面化되면 政權承繼에 따른 體制變化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2) 北韓 政治文化의 특수성으로 보아 承繼危機의 해결이 集團指導體制 構築으로 끝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暫定的 해결책으로 集團指導體制를 생각할 수 있으나 끝내 安定的 獨裁體制로 정착할 확률이 크다. 만약 일시적으로나마 集團指導體制가 마련

되는 경우 이는 「日常的 葛藤」의 可能性을 높이고 體制變化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3) 後述하겠거니와 承繼危機에 따른 頂上階層內的 葛藤, 争鬪의 불씨는 餘他階層으로 파급되어 權力鬪争을 확산시킬 것이다. 金英柱의 權力承繼는 그의 배우집단인 党中央委員會의 第5階層(전문지식과 經營관리능력을 갖춘 後革命世代우세)의 강화와 성장을 재촉할 공산이 크나 이는 第1階層內的 保守的 教條分子 및 第4階層(군사 엘리트)의 強力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3.3.1.2. 「Red」와 「Expert」

北韓의 경우 勞動黨 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에 의해 完全히 통제되는 人事政策의 기준은 아직도 「專門性」보다는 「党性」 및 「社會階級性-프로레타리아性」이 보다 중시되는 變數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 政治的 定向性이 약한 專門官僚의 進出은 아직도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 뿐더러 黨으로 부터 유입되는 政治的 人物의 進出이 國家行政機關의 上向線을 따라 성장하는 官僚보다 훨씬 승진이 빠르다는 사실 또한 官僚體制內的 內的葛藤의 素因이 될 수 있다.

共產主義의 動員政權의 경우 一般的으로 黨의 組織業務나 公安業務에 중사하는 官僚類型은 우선 專門的 能力보다 政治的 신임이 더 중시되며 따라서 社會階層上으로 勞動者 내지 農民出身이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業務를 위하여는 또한 정규의 高等教育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흔히 이들 요원들은 낮은 文化水準을

보여 주게 된다. 이에 반하여 高度의 專門技術 내지 經營管理能力을 要求하는 專門官僚職의 경우 불가피하게 一般적 知的能力과 함께 專門技術的 機能을 必要로 하므로 党性이나 社會階層性보다는 정규의 高等教育을 이수한 높은 文化水準의 人物로 充員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E.F. Vogel은 「政治的 經歷과 合理的 官僚經歷間의 胎生的 分化」(embryonic differentiation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rational-bureaucratic careers)⁶⁾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아직도 전주민을 강제적으로 政治的 階層化하여 第3階層인 이른바 「複雜한 群衆」의 경우 官僚體制로의 充員을 完全히 단절시키고 있다. 따라서 태생적 출신성분이 政治的 基準에 미달한 경우 黨官僚는 물론 行政官僚로의 進出도 사실상 閉塞되어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體制形成(system building)期の 난관을 극복한 共產政權은 體制管理(system management)期로 접어들면서 차츰 政治的 충성심을 앞세우는 党性의 強調에서 專門技術的 能力을 중시하는 專門性的 우대방향으로 轉化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는 大規模의 動員時期에 있어서는 政治的 立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데 반하여 相對的 安定時期에 경우 오히려 專門的 能力이 要求된다는 所論과 의미상 일치되는 논리이다. 그러나 「政治化된 官僚體制」의 온장인 共產主義的 動員政權의 경우 「党性」(red)과

註6) E.F. Vogel, "Politicized Bureaucracy : Communist China," in Fred W. Riggs (ed.),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Duke Univ. Press 1970), pp. 562-565.

「專門性」(expert)간의 상대적 비중문제가 아닌 양자간의 직접 葛藤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어쩔수 없이 「政治性 優位」(politics take command)의 原則이 適用될 것은 물론이다.

사실상 蘇聯과 같이 成熟한 共產主義社會의 경우 그들의 官僚的 성장과정에서 거의 불가피하게 工業 내지 農業分野에 관한 管理指導能力, 企劃能力을 쌓게 되어 수다한 頂上級 政治指導者가 일종의 「테크노크라트」類型으로 간주되는 절차이다. 뿐만 아니라 50年代 이후 蘇聯의 政治的 指導體制에 중요한 核心的 지위에 職業的 政治人이 아닌 政治體(polity) 외부의 전문적 지식인이 投入되는 실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專門的 知識人으로서 社會的 성장을 한 非政治的 人士들이 中央委員會나 政治局요직에 참여하여 주요한 政策決定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예가 그것이다. 이 경우 특히 經濟分野의 支配人 내지 企劃專門家들이 발탁되고 이들이 큰 어려움없이 既存 行政 엘리트 내지 政治 엘리트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소련 政治局(politburo) 構成의 경우 1957년까지만 해도 職業的 政治人이나 官僚出身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으나 1957年 政治局 構成變化이후 外部投入된 拔擢型(cooptation)이 증가일로에 있어 23차 党大會 직전에는 이들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게끔 되었다.⁷⁾ 이러한 현상은 專門的 知識人

註7) F. Fleron, "Representation of Career Types in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in : Barry Farrel (ed.), Political Leadership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Aldine Publ. Company, Chicago 1970), p. 125.

들의 政策開發能力 내지 問題解決能力이 蘇聯의 社會發展을 위해 불가결의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蘇聯社會內的 政治體와 社會體간의 協力の 例示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北韓의 경우도 黨 中央委員會 構成을 中心으로 보면 그 頂上階層인 政治委員會 政위원의 경우에는 12위 이근모를 제외한 全員이 「Red」의 範疇에 속하나 그 第2階層(22위까지)은 그 대부분이 「Expert」에 속하는 부류이다. 따라서 이들 專門家類型은 비교적 집행적 側面이 強調되는 黨秘書局이나 專門的 行政的 次元의 政策決定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中央人民委員會에는 그 進出이 가능한 듯하다. 이는 中核的 權力 엘리트集團의 절대성은 침해받지 않되 體제의 유지와 계속성을 지키기 위한 機能的 必要性 (System needs)에는 순응하여 보려는 北韓 特有的 「호메오스테시스」(Homeostasis) 과정의 개발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北韓에 있어 엘리트층원의 變數로서 政治性(党性)이 專門性보다 중시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는 「革命的 指導者들로 構成되는 共同體에의 층원은 準道德的 訓練과 經歷을 쌓은 자들에게만 허용된다는 共產主義的 動員體制의 基本公式」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央委의 第5階層(서열 59위 이후-)은 주로 黨僚출신의 政治엘리트로서 政治性과 아울러 專門性을 함께 갖춘 새로운 類型의 엘리트層이라는데 그 特色이 있다. 金英柱와 親和性이 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들 第5階層의 上向的 진출은 軍사엘

리트인 第4階層(서열 36위~58위)에 의해 제어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이 後革命世代이며 비교적 高等教育을 받았고 또한 政治性和 아울러 專門性을 개발해 왔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 제3계층(36-58)은 政治性이 높이 평가되는 계층이나 이층 몇몇 專門的 能力이 인정되는 新人派를 제외한 全員이 中央人民委構成에서 탈락한것은 北韓의 경우도 점차 專門性이라는 變數가 증시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8)

[Expert]의 대두현상은 前章에서 밝혔듯이 이른바 收斂理論과 연관하여 그 意義가 크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이들은 아직도 中核的인 政治的 決定에 直接 参与하지 못할 뿐더러 실제적인 영향력 구사에 있어서도 한계가 지워지므로 頂上級 指導層의 誤判을 制動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의 점차적 重用은 北韓 權力集團의 내적 屬性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3.1.3. 制度的. 多元主義의 成熟可能性

일반적으로 볼 때 自由民主的 政治體制의 경우 多元的 政治集團의 자유로운 政治活動이 광범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的 動員政權의 경우 政治過程에의 多元的 利益投入은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蘇聯과 같이 체제의 社會主義的 轉化를 위한 초기 단계를 이미 오래전에 극복하고 차츰 經濟發展 일변도의 動員政策에서 均衡的인 社會發展指向으로 方向을 바꾸고 있는 사회의 경우

註8) 安秉永, 「北韓政治엘리트의 構造分析」, 前掲書, p.75.

黨, 國家官僚體制內部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制度的 利益集團 (institutional interest groups) 들, 예컨대 黨僚派, 行政官僚派, 經濟支配人 내지 企劃担当者들, 軍部엘리트, 外交專門家들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형성될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權力的 지도층 내부에서 생성되는 利害相衝은 결국 조정과 거래의 필요성에서 소위 엘리트간의 官僚政治 (intra-elite, bureaucratic politics) 現象을 불러 일으키고 이는 이른바 制度的 多元主義 (institutional pluralism) 의 싹을 키운다.

제도적 다원주의의 開花를 위하여는 單極的 支配體制인 안정적 독재형의 유형보다는 집단지도체제가 훨씬 더 유리한 동토를 마련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政治, 行政過程內에서 「Red」에 대한 「Expert」의 상대적 지위 향상현상은 個々の 分化된 機能的 전문영역간의 자연스러운 이해상충의 계기를 마련하므로 제도적 다원주의의 성숙을 재촉할 것이다.

北韓의 경우 政治的 權力機構內部에 상충하는 組織利益들에 의하여 표출되는 이른바 엘리트간의 官僚政治경향은 아직 뚜렷하지 못하다. 이는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에 늘려 관료체제내부의 多樣한 制度的 利益들이 독자적으로 自己利益을 結束, 이를 능동적으로 반영시킬 엄두를 못내기 때문이다. 소련 및 특히 근년에 東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추세와 달리 北韓에 있어서는 經濟的 動員政策의 강행이 수단적 조직의 관료제화는 재촉하였으나 이들의 다양한 官僚的 集團利益이 政治過程에 표출되는 이른바 制度的 多元主義를 成熟시키지 못하고 있다.

北韓의 勞動黨 中央委員會會議의 위원구성을 살펴보아도 아직 共產主義的 動員體制의 특징적 단면에 하나인 「國防 및 重工業 官僚

제의 相對的 優勢現象」이 확인된다.⁹⁾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課業 엘리트의 점진적 진출현상이나 肅清樣式的 변화¹⁰⁾ 등 몇 가지 가능성은 北韓 政治體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寡頭制的 化石化」경향으로 특징지우기 어렵게 하고 있다.

3.3.1.4. 政治體제의 社會統合能力

近代化를 추진하는 전형적인 北韓의 動員政權은 Friedrich 와 Brzezinski 가 이른바 全體主義的 獨裁 (totalitarian dictatorship) 의 특징으로 나열한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관료이데올로기,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대중정당, 폭력적 경찰통제제도, 메스콤독점,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그러나 이러한 「中央集權的 命令支配樣式」 (centralist-command mode) 을 고집하고 있는 政治體제는 그들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한 動員政策이 성과를 거두어 점차 社會의 構造的 分化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自律性을 요구하는 社會內的 諸專門分野의 반발이 높아질 수록, 그 社會統合力은 弱化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Conner 에 의하면 일정 사회의 社會統合戰略은 다음 세 가지 變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註 9) 前掲書, p.73.

註 10) 北韓 엘리트充員問題에 관련하여 눈에 띄이는 것은 權力頂上層의 社會的 流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뜻이 있는 肅清樣式的 變化이다. 즉 근년에 들어 肅清은 반대파에 대한 완전한 가치박탈의 의도와 연관되기 보다는 정책상의 葛藤 내지 失敗와 더 결부된다. 또한 課業엘리트의 경우 부분적 復權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체제내의 정책논의, 비판을 조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① 戰略을 구상하는 시점까지의 그 사회의 구조적 분화의 정도

내지 근대화의 수준

② 그 사회에 전래된 政治文化의 내용과 이의 活性度 내지 持久力의 정도

③ 그 사회의 現代化의 目標

北韓의 경우를 보면 傳統政治文化의 權威主義的, 中央集權的 屬性과 北韓의 발전목표중 安保目標가 접하는 비중의 중요성, 또한 아직 성숙의 단계에 진입하기에는 그 구조적 분화의 정도가 미흡한 北韓社會構造의 특성등은 金日成 獨裁政權의 中央集權的 命令支配樣式을 오히려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앞으로 北韓社會의 구조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종래의 통치양식을 고집하는 경우 이는 「政治領域」과 「社 會領域」간의 심각한 불화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간추려 볼 때,

1) 현재와 같은 金日成의 偶像文化가 支配하는 限 統治樣式의 결정적인 變化는 짧은 시기안에 기대하기 어렵다.

2) 그러나 動員政策의 전개에 따라 北韓의 社會構造的 變化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產業社會化 과정에서 포출되는 수다한 문화적 특징을 포출시킬 것이다. 특히 사회제부분의 自律性의 요구는 政治와 社會간의 불화는 政治體制의 社會統合能力의 취약성을 포출시킬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政治와 社會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다시 말해서 「社會의 政治化」와 「政治의 社會化」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北韓政權과 같이 일방적인 「社會의 政治化」만 추구하고 權力集團의 엘리트를 金日成과 원조적관계에 놓여있는 小集團으로 부터 충원하기만 고집하는 경우 여기서 비롯되는 機能的 「타임락」(functional time lag) 현상은 실상 체제의 退化를 재촉할 수 있다.

3.3.2 社会文化体制

3.3.2.1 社会的 階層構造와 社会的 流動性

北韓의 支配層은 社会的 階級的 分化를 부정하고 職種에 따른 包括的 機能分類만을 내세운다. 이러한 그들의 公式화된 階層分類만 하더라도 각기 職種間的 勞動賃金隔差가 크고 같은 職種內에서도 個個人 役割에 따른 보수상의 편차가 크다. 住民의 職業別 構成은 다음과 같다.

区 分 \ 年 度	1963	1967	1972
勞 動 者	40.1 %	42.9 %	46.5 %
專 務 員	15.1 %	16.7 %	18.8 %
協 同 農 場 員	42.8 %	38.9 %	35.3 %

위에서 보듯이 農民은 1963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10年間 7.5%가 減少되었고 勞動者는 그간 6.4%가 增加되었으며 事務員 역시 3.7%가 增加되었다. 이는 北韓 동원정권이 追求한 오랜 東원의 公業화정책의 결과이며 工業과 農業의 不均衡은 勞動者와 農民間的 보수상의 隔差를 크게 하고 있다.

지난 1970년 5次 党大会 水準을 基準으로 할 때 勞動黨員은 北韓 全住民의 約 11.4%인 160만으로 推算된다. 이들은 政治的 特權은 勿論 모든 社会的 價值配分에 있어 越等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北韓社会的 事實上的 最上位 階層이다. 따라서 北韓 社会的 階層分類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党性 내지 프롤레타

리아성이며 이렇게 形成된 帰屬主義的이고 準身分制的 位階秩序는 北韓社會를 兩分 내지 三分하고 있다. 兩分이라 함은 黨員 및 非黨員의 兩分法에 依한 것이고 3分法은 그들이 政策上 分類한 이른바 黨員을 中心한 核心群衆과 其他 基本群衆 및 複雜한 群衆의 分類方法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詳細한 論議는 筆者의 지난 論文에서 다루어 지고 있으므로 詳論을 피하고 그 重要한 論點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一般적으로 볼 때 北韓의 階層構造가 보여 주는 극단적 帰屬主義的 屬性은,

- 1) 이 社會의 社會的 流動性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 2) 當 世代의 社會的 流動性은 거의 용인되지 못한다. 그러나
- 3) 後世代의 部分的인 社會的 流動性은 認定되고
- 4) 이는 새 世代의 同調行爲를 자극하여 機會主義的 人間化를 促進할 수 있다.
- 5) 뿐만 아니라 全 人口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社會的 疎外集團에 대한 政權의 무자비한 階級政策은 오히려 이들의 「反體制感」을 심화시켰을 可能性이 크나 이는 組織化된 行動으로 분출할 可能性이 없으므로 體制內의 갈등요인으로 內燃化되고 있을 것으로 推測된다. 1)

註1) 安秉永, 北韓社會文化體系의 經驗의 分析과 變動모델構成, 國土統一院 (1972.12), PP. 75 - 81 參照.

3.3.2.2 共産主義的 社会化의 限界

北韓은 그들이 要求하는 「共産主義的 人間」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 유년기부터 住民들의 社会化過程에 깊숙히 관여한다. 따라서北韓의 兒童은 일찍부터 母情의 품을 떠나 託兒所에서 集團主義的 價值觀教育의 첫발을 디디게 되며 10년간의 義務教育期間(5.-16歲) 동안 유치원, 인민학교, 중고등학교과정을 거치면서 당은 물론 당의 외곽 社会团体인 「朝鮮少年團」과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등을 통하여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人間」을 鑄造하기에 모든 努力을 쏟는다.

일단 정규교육을 마친 후 社会에 進出한 후에도 이들은 社勞靑을 비롯한 職業總同盟, 農業勤勞者同盟, 女盟 등 大衆組織을 통하여 당의 移轉目標遂行을 위한 動員政策을 效率的으로 大衆에게 침투시키는 반면 이를 매개로 大衆을 몇겹으로 묶어 놓음으로서 당이 社会構成員의 모든 生活領域을 組織的으로 規制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社会集團들은 당의 發展政策에 기꺼히 動員되는 「새로운 人間型」의 鑄造를 위하여 이들의 社会化, 再社会化에 관여하고 틀에 박힌 住民文化 創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160 만의 당원을 포용하고 있는 당조직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중조직에 의한 住民의 組織化 程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당원 : 160 만 사로청원 : 270 만

직맹원 : 220 만 농근맹원 : 260 만

소년단원 : 250 만 여맹원 : 250 만

이상의 조직화된 人員數를 합산하면 1,410 만으로 그 수가 과다함은 重疊的 成員構成의 결과이나 北韓의 大衆組織現況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된다. 以外에 北韓은 約 46 만의 정규군, 142 만의 노동적위대, 76 만의 붉은 청년근위대를 통하여 주민의 軍事動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7 년 이후 北韓 住民은 매일 2 시간의 사상교육을 의무화하고 간부들은 년 2~6 개월간 각급학교에 파견하여 사상교육에 전념시키고 있다.

이렇듯 그 유체를 찾아 보기 힘든 單極的 社會統合努力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政治社會化政策은 그 限界性을 느끼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는 특히 朝鮮 및 東歐共產諸國에서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諸般傾向과 연관하여 考察할 때 더욱 뚜렷해 진다. 무엇보다 근년에 들어 北韓 政權이 作業의 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理念教育이나 規範的 誘因의 주입만으로 부족하다는 事實을 깨닫기 始作하는 狀況과 연관된다.

3.3.2.3 知性文化의 醜摩可能性

1) 北韓의 旧「인텔리겐차」중 그 대부분은 社會的 出身成分과 過去의 經歷 때문에 体制의 崩潰속에서 墮落의 運命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은 政治的 階層構造의 경직성 때문에 再活의 機會를 喪失했다.

2) 共產主義의 社會化過程을 거친 이른바 社會主義의 「인텔리겐차」가 現在 數的으로 旧 인텔리겐차를 훨씬 능가하고 있고 体制의 新임도는 높으나, 이들은 文化的 概念에 의하여 把握되는 知識人의 範疇라기 보다 精神적 노동자의 總稱이라는 극히 形式的인 範疇의 概念이다. 또한 이들은 극도의 社會主義的 社會化 過程속에서 排他적 世界觀과 機會主義的 人生觀을 체질화했을 可能性이 높고 비판적 知性文化的 전통이 없다. 특히 外來思潮와의 交涉 단절과 單極的 金日成 唯一思想体制속에서 이른바 体制的 「마르크스」主義의 先구적 행동역으로 自己를 認識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특수성과 知識人 本然의 知的關心에 따라 人間소외화의 「体制的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潛在的 反발을 느끼고 보다 자유로운 知性文化的 可能性을 모색하는 부류가 殘存할 것으로 생각한다.

3) 知識人 階層中 이른바 創造的 知識人의 範疇에 대한 体制의 強壓的 통제정책은 특히 文藝인의 속청사속에서 밝혀진다. 특히 이들은 北韓 특유의 「群衆文化」 政策속에서 体制의 대중조작을 위한 知的手段으로 轉落한다. 특히 1960年代 以後 이러한 경향은 深化한다.

4) 技術的 知識人中 專門的 行政 官僚들의 政治的, 社會的 成長은 刮目할만하며 技術者, 專門家들의 需要 또한 證明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나 이들의 体制 종속적 성향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北韓 社會의 變動 특히 産業化 過程의 深化에 의한 合

理的 관행의 일반화, 脫理念的 경향의 보편화 등은 특히 기술적 知識人의 思考 및 行態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이들이 경우에 따라 体制内에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Insider」로 變化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높인다.

5) 北韓社會의 知性文化의 定向과 內容을 決定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은 現在의 反知性的 政治指導體系의 存在이며 이의 變化는 비판적 知性文化의 새로운 可能性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體制 管理期와 政治的 安定期에는 知識人의 活動이 보다 生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나 南北關係에 따른 慣性化된 政治不安은 知性文化의 可能性을 높이는데 影響을 던져 주고 있다.

6) 그러나 환경적 자극의 도입 즉 외래사조의와의 接觸은 이러한 知性風土에 變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家族價值등 전통적 文化가치에 대한 知識人의 향수나 個人的 自由나 實存, 비판적 人間能力에 대한 知性 本來의 追求性向은 새로운 知性文化를 높이는데 그 기반을 形成할 수 있다.

批判的 知性文化가 體制 內外的으로 生動하고 이것이 北韓 特有의 全体主義的 社會化過程에 映證을 느낀 青年文化를 자극하고 또한 住民文化와 接觸, 선도할 수 있을 때 이는 社會 및 文化變動의 「요람」이 形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北韓의 경우 現實的으로 요원한 일이다.

3.3.2.4 家族, 宗教, 民族 및 自由價値의 再解析

1) 有機體的 變動에 기초하여 血緣關係로 맺어진 社會構造의 기

저단위로서 社會化 (socialization) 의 계급차적·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家族構成員의 「퍼서넬리티」형성에 영향을 주며 世代를 통하여 그 社會의 文化價值를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家族關係는 원초적 集團關係로서 情誼的이고, 自然發生的이며, 全人格的인 交涉關係인 것이다.

2) 그러나 北韓의 指導層은 家族을 「社會主義 革命理論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最低單位」로 規定하고 전통적 家族文化는 非公算的 保守體制의 유계로서 그 破壞에 앞장섰다. 이에 종래의 家族, 유교적 관습, 家族의 위계질서, 結婚觀, 男女觀등은 價值混動의 와중에 서 그 빛을 잃고 있다.

3) 社會構成的 中核인 家族制度의 破壞에 있어 무엇보다 큰 구실을 한 것은 生産手段의 集團化를 통하여 家族中心의 經濟的 거점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都市는 물론 農村에서도 集團生活에 必要한 「農村文化住宅」으로 이주케 하고 公民證制度, 5戶担当制를 強化하는 등 相互監視, 思想檢討의 方法을 구사하고 家族觀念 말소에 앞장섰다.

4) 특히 이들은 초기 社會化의 중요성을 認識하여 適齡期 아동의 過半을 託兒所에 맡겨 集團化시키고 女性의 脫家庭化²⁾를

註 2) 勞働者 事務員中 女性의 參與化

56 年	19.9 %
64 年	37.3 %
71 年	53.7 %

통일조선년감 ('65 - '72)

통하여 母情을 捻出할 뿐더러 위에서 말했듯이 「少年團」, 「社勞靑」, 나아가서는 「黨」을 통한 鑄造的 人間化政策을 강행하므로써 北韓에서의 家族의 機能은 그 기반을 잃어 버리는 것이다.

5) 그러나 人間의 家族에 대한 향수는 作爲的 統制에 의하여 規制되기에는 너무나 원초적인 超合理的 性格의 차원인 것이다. 이의 代表的 實証은 金日成이 그 자신은 물론 그의 家系 및 親族까지를 偶像化시키는 新 「家族主義」의 行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金日成의 行態가 그곳에서 수용될 수 없다면 그는 이러한 시도자체를 포기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 權力層의 族別주의적 變因도 이를 뒷받침하는 얘기일 것이다. 東歐의 몇몇 나라의 경우 農業集團化政策이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家族單位의 個人營農形態로 方向을 바꾸었음도 家族이라는 生活拠点이 갖는 特殊性과 연관된다.

6) 이렇게 볼 때 北韓의 경우, 內燃化된 家族에의 향수가 北韓의 體制分裂의 基本細胞로서 作用할 可能性은 存在한다. 그러나 이러한 潛在力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어떤 극적인 계기가 必要할 것이다.

다음 종교에 관하여 살펴 보면

1) 1972年 12월에 採択한 新憲法 54條는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宗教의 自由는 全無하고 反宗教 탄압의 自由만 存在할 따름이다. 이미 東歐에서는 종교탄압정책을 緩和하여 宗教活動의 지하운동화를 막고 있고,

中共까지도 宗教라는 対象自体에 대하여는 可能한 限 탄압을 피하고 다만 協力を 기피하는 신자들에게만 個別的인 제재를 加하는데 비하여, 北韓의 경우 完全한 宗教抹殺政策으로 치닫고 있다.

2) 宗教는 人間의 理性의 次元에서 完全히 把握할 수 없는 彼岸의 領域으로 現세의 價值를 否定할 수 있는 超合理的 潜在力을 具유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도 內面化한 宗教意識의 潜在力이 存在하는 한 그 內面的 價值가 전수될 수 있다는 可能性이 存在한다.

3) 그러나 北韓의 경우 制度化된 宗教 (institutionalized religion)가 存在하지 않았고 比較的 강한 기반을 갖고 있던 기독교, 천주교의 주축세력도 남아있었다는 點, 천도교 세력 또한 北韓政權 樹立初期에 政治적으로 惡用당한 후 繼續된 탄압으로 약화일로 의 길을 걸었다는 點등을 考慮할 때, 內密的인 宗教活動의 명맥도 이제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可能하다. 예컨대 1960년의 원산철도공장의 「천주교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후 종교적 事件이 거의 問題化되지 않았다는 點도 이를 뒷받침한다.

4) 最近 北韓의 偽裝의 宗教攻勢는 순전히 대남전략상의 차원에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허구적 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 통일 전선전략에 利用하려는 심산은 이미 공지의 事實이다. 國家的 代用宗教인 金日成 유일사상에 의한 전주민의 理念的 統一을 피하는 北韓으로서는 또 하나의 「메시아니즘」을 용인할리 만무다.

5) 그러나 종교적 가치의 상징적 의미는 旧 世代에게 적지 않게 아필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文化的 衝擊은 이들을 再活性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우리가 특히 關心을 끄는 것은 民族이라는 價值問題다.

1) 北韓은 그 政權樹立以後 繼續 實現性 없는 統一政策을 표방하여 平和를 가장하였고 이로써 民族的 價值에 남다른 비중을 두는 양 행동했다. 특히 60年代 以後 대두한 金日成 唯一思想을 표방하며 「主体」의 상징을 통하여 거짓에 찬 革命傳統을 조작하는 등 現實的으로 民族的 價值를 活用하는데 큰 努力을 쏟았다.

2) 그러나 東歐의 경우 民族的 價值나 그 상징은 흔히 반쪽운동으로 또 「社會主義에의 다양한 길」 내지 「自國原則」으로 發展하고, 혹은 自由로운 民族文化의 발현을 위한 努力으로 具体化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點을 考慮할 때 北韓의 경우도 住民들이 바른 의미의 民族觀을 理解하고 歪曲된 民族概念에서 脫皮할 때 새로운 可能性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예컨대 共產主義의 本体가 民族主義와 어긋나는 國際主義의 階級主義임을 밝히고 또한 北韓政權이 얼마나 많은 有益한 傳統文化的 價值를 破壞하였는가 또 민족상잔의 원흉이 누구인지, 民族統一을 위한 대화의 방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北韓 住民에게 바르게 認識시킬 수 있으면 이는 새로운 民族概念의 바른 理解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 自由의 價值는,

1) 東歐의 경우와 달리 北韓 住民의 대부분에게는 比較的 생소한 概念이다. 이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北韓이 自由의 불모지였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그러나 全体主義的 동원정권의 과도한 강압정책에 시달려 온 北韓住民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과의 接觸에 따라 自由意志의 분출을 經驗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질 것이다.

2) 예컨대 北韓出身 朝鮮 및 東歐留學生이나 北送된 在日교포가 北韓社會에 보여 준 보다 자유로운 生活樣式에 대해 당시 北韓政權이 이처럼 경악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 연유된다 하겠다. 自由의 水準에 있어 外部世界와의 지나친 격차는 오히려 北韓의 ক্ষে화를 자극할 것이나 이는 自由와 人間 회복에 대한 北韓住民의 면역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말 것이다.

이처럼 北韓政權에 의해 무자비하게 破壞된 家族文化, 宗教 및 民族的 價值 및 自由는 外部的 刺戟에 의해 새로이 활성화될 수 있는 北韓體制의 潛在的 갈등의 원천이다.

3.3.3 經濟體制

北韓政權이 經濟體制 變革을 위하여 마련한 첫 段階가 이른바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로써 그 내용은 基本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國有化, 農業協同化 手工業과 資本主義的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였으며 이것이 1958年 實現된 것으로 主張된다. 事實上 農業協同化는 적지 않은 論難을 겪으면서 生産力이 比較的 저급한 段階에서 강행된 例外的 「케이스」이다.

다음은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적 工業化의 努力이다. 이 과정에서 金日成은 이른바 技術革命을 強調하며 그 基本內容을 工業部門의 경우 機械化, 自動化, 化學化, 農業部門의 경우 修理化, 電氣化, 機械化로 集約되어 強調하여 왔다.

北韓의 社會變動의 一環으로 經濟體制의 變化를 살피는 경우 이하의 論點으로 集約할 수 있다.

3.3.3.1 重工業 優先政策

北韓은 오랜 期間동안 重工業 優先의 軍需産業을 育成하므로써 적지 않은 分野別 不均衡을 露로했다. 특히 農業과 工業間의 不均衡과 重工業部門과 輕工業部分의 편차가 그 代表的인 實例이다.北韓은 주로 概念 計劃期間(1961~1967)에는 주로 철강, 化學, 纖維, 紙類등 연쇄효과가 큰 중간재 제조의 2차산업에 주력을 하였으나 6個年計劃 동안에는 衣類, 食料品, 製粉, 木材등 최종재의 製造와 「서비스」業種의 開發에 눈을 돌리려 하는 인상이다.

이와 같이 北韓의 産業構造가 戦후 계속된 重工業 第一主義에서 消費産業으로 轉換된다면 革命思想의 規範的 주입 속에 매몰되어 있는 一般市民의 心理的 동요는 물론 이들의 生存目標나 價值觀 또한 變化하게 될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1973년 부터 다시 재연되는 南北關係의 惡化는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 傾向으로 다시 재래의 方法을 고수시킬 可能性이 보인다.

3.3.3.2 勞動力 管理方法

우선 金日成은 1950年代의 천리마운동의 경우, 大衆動員과 生産性 提高를 위한 動機化(motivating)의 方法으로 무엇보다 強制性과 規範性을 강조하였음을 본다. 즉 黨과 行政的 階層制, 其他 多様な 社會集團을 통한 강압적 統制手段과 이데올로기와 革命等 規範的인 價値의 호소력이 대중동원의 주된 手段으로 利用되었다.

「하나는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라는 구호밑에 集團主義的 구호밑에 展開되는 천리마運動은 金日成 自身이 밝힌 바와 같이 일종의 「社會主義競爭運動」으로 1970年代 朝鮮에서 實施된 生産戰略인 「스타하노프 運動」의 再版인 것이다.

金日成은 1960年, 이른바 靑山里 農業協同組合의 「現地指導」와 1961年, 大安電氣工場의 「現地指導」를 통하여 靑山里方法과 대안의 事業體系라는 새로운 노동력 관리면의 改革을 推進하기 시작하였다.

前者는 黨 및 行政分野의 中堅 일꾼들이 官僚的 작풍을 버리고 직접 協同農場에 나아가 農民들과 함께 일하며 指導하는 農業經營의 새로운 指導體系인데 反하여, 後者는 工場에 있어서 從來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던 지배인 유일관리체계를 黨委員會의 집체적 指導로의 變化를 근간으로 「웃사람은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노동자 자신의 자각과 創發性을 提高시키는 한편 生産者들인 勞動者들이 企業管理에 直接 參與할 것을 그 內容으로 한다.

1) 이러한 經營管理 내지 勞力管理의 改善策은 종래의 강제성과 規範性만을 強調하던 立場과 比較할 때, 組織內의 人間關係의 要因을

強調하고 또한 組織의 民主化를 통하여 勞動大衆의 位置를 상대적
으로 격상시켜 주는 새로운 경향인듯 하나 問題의 核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 우선 淸산리 方法은 무엇보다 國家官僚體制 內部에 도사리고
있는 官僚主義, 形式主義, 保守主義 등 官僚制의 逆機能을 수술하기
爲하여 人民의 이름으로 金 自身の 行政統制力을 強化해 보려는
저역의 일단이며 대안지도체계 역시 工場 黨委員會의 集體的 영도
체계의 確立을 통한 指示, 監督體系의 強化手段인 것이다.

3) 그러나 金日成은 人民의 勞力動員을 위하여 功利的 要因의
중요성을 점차 認識하고 獨立採算制를 導入하는 등 보다 合理的인
誘因提供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3.3.3.3 生産管理方法

北韓은 經濟發展에 따라서 產業構造가 複雜해 지고 또 複雜한
產業構造를 效果的으로 統制하기 위하여 生産管理方式을 變造시킬
必要性 하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北韓의 生産管理
는 現在 중앙집권적 管理體制로 부터 지방분권적 管理
體制로 變化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 國
家에서 흔히 보여지는 현상으로 분권체제가 發展하면 社會機能이
分化되고 統率範圍가 擴大되며 1日 獨裁體制의 支配形態는 점차
무력해 지게 마련이다.

3.3.3.4 技術革新

北韓의 經濟構造를 보면 技術革新이란 과제는 심각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 經濟發展과 더불어 成長한 科學技術은 1960年代까지 規模革新과 能率을 向上시키는 性能革新에 置重하였으나 1970년을 고비로 外國技術, 應用期에 접어 든 重要한 時期였던 것이다. 또한 東西陣營의 理念上的 과제를 不問하고 進歩된 技術을 導入하여 解決策을 구하려고 한다면 北韓社會의 새로운 變化는 거의 불가피한 것이다.

北韓은 黨中央委의 5期 3次 會議에서 海外資本 및 技術導入推進 (1971.11.15 ~ 23)을 결의한 바 있다.

3.3.3.5 海外貿易構造

일정 社會內에서 近代化된 부문이 점차 複雜해 짐에 따라 同원 政권이 追求하는 自足的 經濟體系 (Autarchy)의 盲點이 드러나고 國際貿易의 必要性이 急激히 增加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社會에 의 適應現象을 결국 動員政權의 統制方式의 緩和를 強要하게 되고 그 결과 非公認된 部門 (政治, 社會)에서의 近代化의 壓力은 增大한다.

北韓의 年度別 對日 輸出額을 살펴 보면 1969년의 경우 불과 32,186,000 달러였던 것이 1973년에 들어와서는 162,100,000 달러의 輸出規模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1970年代에 들어 오면서 北韓은 朝鮮, 中共,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등과 「 '71 ~ '75년간 장기 무역협정」

과 「經濟 및 科學技術協定」을 체결하여 共產國家와의 貿易擴大를 促進시키는 同時에 日本을 비롯한 西方國家들과의 호혜주의에 입각한 貿易擴大政策에 이어 覺醒貿易의 實施를 提議하고 貿易代表部를 實施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北韓의 貿易量이 增大되고 그 對象國이 中立國 혹은 西方國으로 擴大됨에 따라 封鎖的인 北韓의 經濟體制는 開放體制로 轉換되고 이는 北韓社會變動의 좋은 계기가 되 수 있을 것이다.

3.3.3.6 消費패턴

北韓의 消費類型을 보면 5個年計劃까지는 單用材가 中心이 된 日用품 위주의 消費類型이었다. 그러던 것이 7個年計劃期間에는 재봉틀, 자전거 등 반·내구성 소비재 위주의 低級 생산편의품 中心의 消費類型으로 轉換하였고 또 6個年計劃을 계기로 T.V. 냉장고 등 내구성 소비재 中心의 高級生活用品 위주의 소비유형으로 變化하려는 추세가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經濟發展과 소비재 生産의 規模擴大에 따라 一般 勞動者들이 그들의 作業에 대하여 物質的인 誘因을 요구하는 物質生活의 향유를 갈구한다면 이는 소비생활에 커다란 變革을 招來할 것이다.

소비생활의 欲求上昇은 自由에 대한 期待上昇과 상통되며 이는 體制變化의 要因이 될 수 있다.

3. 4 環境要因

環境要因에서 論議될 重要한 부분이 筆者의 論文 「北韓社會의 變動可能性과 自由化方案에 關한 研究」에서 비교적 詳論되고 있으므로 (PP. 76 ~ 108 및 PP. 128 ~ 131) 이의 參照를 要하고 여기서 重要 論點만 整理하려 한다.

1) 北韓은 그 外的 環境을 認識할 때 北韓體制의 「民主力量」과 南韓內的 「革命力量」 및 國際社會의 「支援力量」을 함께 考慮한다. 이는 또한 그들의 對南戰略의 基礎 變數이다.

2) 南北韓 關係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國際社會의 영향력중 가장 중시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4強間의 關係와 또 이들의 對韓觀이다. 이들의 個別的인 立場을 集約하면,

i) 美國은 한반도에 關한 基本的인 關心을 포기하지 못하나 새로운 秩序의 구축을 위한 積極參與는 피하는 立場이다.

ii) 日本은 한반도의 統一에 집착할 理由가 없으며 오히려 南北韓 等距離外交의 可能性 속에서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려 한다.

iii) 朝鮮은 中共과 競爭的 立場에서 北韓을 支援할 것이나, 한반도의 현상유지, 平和定着에 關心이 크다. 北韓이 神經質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는 限 對 南韓과의 開放的 關係設定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v) 中共 또한 한반도에서의 急激한 變動이나 紛爭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현상유지적 東北亞 秩序의 구축은 오히려 이들의

關心事이다. 그러나 中共은 繼續的인 體制內的 불안과 革命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에 대해 朝鮮과 競爭의 支援을 하고 있는 狀況 때문에 突發戰爭까지도 불사하는 北韓의 攻勢的 性向을 制動할 수 있는 能力은 制限된다.

3) 以上에서 볼 때 한반도 주위의 國際秩序는 현상유지적 속성이 강하며, 따라서 i) 統一에 대해서는 消極的이나, ii) 北韓의 赤化統一野慾에 대해서는 더욱 否定的이다. iii) 그러나 만약 北韓이 赤化統一野慾을 具體化시키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바람직한 制動裝置는 없다.

4) 北韓은 環境과의 交渉에 있어서 自身の 영향력을 투사하는 問題에 關한 한 점차 積極的인 면모를 보여주나 環境的 要因의 內的 침투에 대해서는 體制의 閉鎖化로 이에 대응한다.

5) 그러나 北韓은 繼續的인 環境接觸(政治的, 經濟的 必要에 의한)은 長期的으로 볼 때 北韓體制變動에 刺戟誘因을 투입시킬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共產國家를 통한 우회적 北韓接觸의 계기를 생각할 수도 있다.

4. 變動誘因變數間的 聯關構造

4.1 理念體系

1) 一定한 政治社會의 移轉文化目標가 革命的 이데올로기의 內容이나 이를 正當化시켜 주는 革命的 교의 자체에서 導出되지 않고 社會現實에 대한 獨裁者의 自己解析이나 그의 특수한 퍼서넬리티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이데올로기의 刷新 (ideological innovation) 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데올로기의 현실 適力을 높혀 주는 利點이 있으나 간혹 目標文化內容의 變調에 까지 이르는데 보다는 敎條的인 敎義形成의 契機가 마련되기도 한다.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는 事實상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內容의 變調에 까지 이르는 새로운 敎義이다.

2) 政治社會의 理念體系가 敎條的 性格을 강하게 띠며 移轉文化 또한 硬直性을 시현하게 된다. 反面 理念體系의 敎條的 性格이 약한 政權의 경우 移轉文化의 內容은 신축성과 가변성을 강하게 함유한다. 敎條的 性格이 약한 共產政權인 유고의 경우 革命初期에 강행하였던 農業集團化政策이 후일 포기되고 오히려 個人的 自營農業形態로 還元되어 가는 예가 後者의 좋은 본보기이다.

3) 理念體系의 敎條的 性格이 강한 北韓은 移轉文化目標 設定에 심한 硬直性을 띄우며 여기에 金日成 自身の 偏執型의 퍼서넬리티가 강하게 투영된다.

4) 金日成 自身이 設定한 北韓體制의 中間目標는 無階社會建設과

赤化統一이다. 또한 이를 성취하기 위한 包括的 移轉文化 目標은 經濟發展과 安保로 集約할 수 있다. 이들 移轉文化目標의 추구를 위하여 北韓은 全体主義的 動員體制를 形成하고 金日成의 主体思想을 근간으로 革命的 動態性的 振作을 위하여 專念한다.

5) 經濟發展目標의 遂行과 연관된 主要한 政策規範은 초기의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 중기의 重工業優先의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段階를 거치면서 6個年 計劃 ('71 ~ '76)에 이르러 重工業과 消費財產業, 工業과 農業의 병진적 育成的 方向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6) 安保目標의 主된 政策規範은 武力統一과 對南人民革命戰略의 두가지로 집약되며 兩者를 同時에 推進하고 있다.

7) 이들 移轉文化 目標을 추구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革命」의 苛烈性은 그 程度가 점차 심화된다. 經濟發展 目標과 安保目標의 相衡可能性은 항상 存在하며 이는 특히 國家豫算規模에서 暴露된다. 예컨대 軍事力強化는 소비재 産業部門의 發展을 저해하며 이는 産業構造 不均衡을 심화시킨다.

8) 상충하는 二重目標의 同時的 遂行을 위한 努力은 體制의 動員化를 가속화 시키고 理念體系의 教條的 硬直性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理念體系의 變質可能性은

① 우선 金日成 唯一思想體系의 「主体」와 性格과 연관될 수 있다. 즉 이른바 主体思想의 세가지 要因인 政治的 自主, 經濟的 自立 및 國防的 自위의 성취를 위하여 i) 外交의 多變化.

ii) 資本 및 技術導入의 必要性에 立脚한 對日 및 對西方接近,
iii) 자위를 위한 南北關係 및 對西方關係의 교정의 必要性등의 契機는 理念體系變動의 刺戟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可能性은 實質적으로 볼 때 金日成의 主体思想으로 부터 연역되는 것이라기 보다 北韓 社會體制의 機能의 必要性 및 이에 對應한 環境과의 교섭에서 오는 可能性이다.

② 위에서 보았듯이 北韓의 理念體系를 決定하는 가장 主要 要因은 金日成 自身の 퍼서넬리티와 이로부터 연원하는 그의 唯一 思想, 理想문화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死亡은 北韓의 理念體系의 변조를 招來할 것이다. 새로운 政權承繼者도 包括的 移轉文化目標인, 經濟發展과 安保目標은 繼續 追求할 것이나 그 政策規範의 下 位體系나 이를 위한 動員政策의 實施에 있어서 새로운 變化의 可能性이 찾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金日成의 死亡은 北韓內의 가장 重要한 革命的 動態性的 震源이 消滅되는 것이다.

北韓의 理念體系는 短期的으로 볼 때 그 變化의 可能性이 별로 크지 못하다. 오히려 金日成 唯一思想이 보다 심화되고 環境的 要因의 유입을 두려워 하는 體制는 더욱 폐쇄화하는 政策을 活用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北韓의 유례없이 경직화된 理念體系는 敘上의 變動要因의 作用으로 變化의 운명을 맞보게 될 것이다.

4.2 社会体制分析

政治体制，經濟体制，社会文化体制의 變動誘引變數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個個變數의 運動方向은 左→右의 方向이다.

I. 政治体制

i) 金日成

存, 否

ii) 「Red」 v. s. 「Expert」

党性우세, 專門性우세

iii) 多元性

寡頭的 化石化, 制度的民主主義

iv) 政治의 機能的 社会統合能力

弱, 強

II. 經濟体制

i) 生産財產業과 消費財產業

不均衡, 均衡

ii) 動機化

規範的誘因, 物質的誘因

iii) 生産管理

集權化, 分權化

iv) 技術革新

外國技術不導入, 導入

v) 對外貿易

(iv) 國際的 被評價能力

II. 國際政治体系

(i) 戰爭抑制能力

(ii) 변화투입能力

위를 集約하면

1) 만약 大韓民國이 위에서 例挙한 能力變數의 水準을 繼續 높일 수 있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北韓의 体制 폐쇄화를 刺戟할 可能性이 크나, 이는 또한 長期的으로 보아 北韓体制의 南韓收斂的 變化를 유인하고 아울러 평화공존상황을 굳히게 할 可能性이 크다.

2) 北韓은 그 對外 環境과의 接觸을 生理的으로 극히 기피한다. 이는 무엇보다 外部의 自由主義的 思考와 生活樣式의 体制內的 유입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北韓은 体制의 폐쇄화의 限界를 느끼고 있음 또한 分明하다.

國際社會의 環境的 壓力은 長期的으로 보아 北韓의 전쟁도발을 抑制하고 北韓의 社會体制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4. 4 対応策

I. 韓國의 安保能力, 經濟發展能力, 國民總和能力, 國際的 被評價能力의 提高

여기서 經濟發展과 國民總和가 서로 연관이 되기 위하여는 經濟發展이 物量的 經濟成長이 그치지 않고 經濟·社會의 構造的

不均衡을 해소하는 方向으로 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 南北對話를 爲한 繼統的 努力

南北間의 繼統的 接觸은 統一로 향하는 우리의 民族的 意志의 表現인 뿐더러 이는 北韓과의 環境的 接觸의 계기와, 體制變動 變數操作을 위한 可能性을 부여하고 國際社會 속의 우리의 地位를 鞏固할 수 있다.

III. 共産圈을 통한 北韓에의 迂廻的 接近

共産圈과의 보다 緊敏한 接觸은 우리 社會의 開放性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뿐더러 第三者를 통한 北韓에의 接近可能性을 부여한다. 이들 諸國과의 接觸은 可能的 限 文化的 交流 接觸부터 始作하여 經濟的, 政治的 接觸으로 옮겨갈 必要가 있다. 北韓의 環境과의 接觸개턴은 一方通行性을 띄고 있어 자기 영향력의 무사와 이에 대한 外部的 好意의 흡수에 그치며 그 關係 또한 表皮的 性格을 띄고 있어 相互間의 內密的인 깊은 交流를 두려워 한다. 特別히 環境으로 부터의 精神文化的 要因의 유입을 극력 回避하고 이는 北韓體制의 潛在的 變動要因을 活性化시키지 못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共産圈과의 接觸을 통하여 그들의 對峙 敵對感, 無関心을 中和시키고, 이를 友好關係로 變형시키는 立場, 이들을 北韓體制變化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로 유인하는 道이다.